

미스바대성회 성황리 개최

남가주 최초의 연합집회

“천국백성답게 살자”

박보영 목사 진솔하게 살아온 이야기 전해

동양선교교회 예배당 성도들로 가득 메워



박보영 목사

제1회 남가주 미스바대성회가 지난 1일 오후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박보영 목사(인천 방주교회 담임)를 감사로 초청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성회 첫날, 예배당 안에는 성도들로 가득 찼고, 이들은 내내 찬양과 기도를 통해 뜨거운 열기를 내뿜었다. 박보영 목사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마7:21-27)라는 제목으로, 간증과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박 목사는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1시간 40여분에 걸쳐 메시지를 전하며 성도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 목사는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 천국가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것”이라며 “정말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인지 돌아봐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얼마든지 지옥에 갈 수 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눈범죄와 손범죄를 끊고 살아왔는가 묻고 싶다”면서 서두를 꺼냈다.

이어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교인들간의 싸움으로 불신의 삶을 살았던 것, 목사가 되기 싫어서 의사가 된 과정, 세상에 남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 가정이 깨지면서 좌절된 삶 속에서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뻔한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의 치료로 심장이 완전히 낫게 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왜 나 같은 놈을 부르셨는지 기도하면서 눈물

과 콧물, 먹은 것을 다 토해내면서 울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다 가짜다. 얼마나 많은 중들이 넓은 길로 가는지 아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을 만나고 나같이 많이 탄감을 받은 자가 없다. 난 용서받은 죄인이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 지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을 나에게 행하셨지만 믿지 못했기에 내 몸을 낮게 하심으로 받게 하셨다”며 “그리고 나서는 거지가 돼 용산역 옆에 있는 쪽방에서 노숙자들을 돕고 지냈다. 지금은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산다. 많은 날들을 굶고 힘겹게 살았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 거듭났기 때문에 기쁘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주님은 우리가 천국백성이 되길 기다리신다. 이제는 굶지 않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하지만 이게 기쁘지 않다”며 “불과 몇 년 전까지 고생하며 살았던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저주받던 인생이었는데 왜 돌아가고 싶은지 모르겠다.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기쁜 것이 돈, 명예, 쾌락이 아니다. 믿음의 길로 가야 한다. 내가 천국백성답게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다. 십자가의 길로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단언했다.

〈기사 2면으로 이어짐〉

토마스 멩 기자



남가주 최초의 연합집회로 당당히 자리매김한 미스바대성회. 지난 1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성회에 참석한 한인 성도들이 기립한 채로 두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고 있다.

1백여 女리더들 세계기도일 맞아 기도 손 모우다

올해 기도문 작성국은 佛

“문을 열어 이방인을

영접하라” 주제로 진행

남가주 한인기독교여성 1백여명이 중보기도의 손을 모았다. 지난 2일 오전 10시 성광장로교회(담임 이상훈 목사)에서 열린 세계기도일 예배에서다.

미주한인교회여성연합회 남가주 지부(KCWU, 회장 최미란 권사) 주최 하에 드려진 이날 예배에서 각 교단 교파를 초월해 모인 기독교성 리더들은 불의와 낙망에 빠져있는 세계 각처의 소외 여성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올해 세계기도일 예배에서는 ‘문을 열어 이방인을 영접하라’는 주제로 프랑스코교회 여성들이 작성한 기도문에 따라 프랑스코 이주민들을 그

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프랑스코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있게 전파되기를 한국과 미국 각 지역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이민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했다.

세계기도일 예배는 매년 3월 첫째 주 한 달 한 시에 동일한 기도문을 갖고 초교파적으로 드리는 예배다. 올해로 126주년을 맞이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세계 180개국 교회 여성들은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특별히 기도문 작성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 1887년 미국장로교 국내 선교부 의장이었던 다윈 제임스(Darwin James)라는 여성 평신도에 의해, 미국으로 새 삶의 터전을 갖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기사 3면으로 이어짐〉

정하나 기자

김인수 전 미주장신대 총장 ‘십자군과 까울레’ >> 14면

TAX 문제 전문 TAX HELP TEAM
 안 풀리는 IRS, BOE, FTB, EDD

CLIENTS	RECENT CASES	RESULTS
KY.HWANG	IRS \$63,403.00	\$6,331.41 (\$100/mo)
CP.RESTAURANT	BOE \$69,300.00	\$8,456.80 (\$500/mo)
N.D. INC.	EDD \$23,983.25	\$0
M. YIM	IRS \$137,22.49	\$200/month
KY.KWON	IRS \$44,471.46	\$0
T. HAN	IRS \$735,661.94	\$15,566.00

 3250 Wilshire Bl. Ste 900, L.A. CA 90010 Tel. 213-248-0221
 1201 S. Beach Bl. Ste 106, La Habra, CA 90631 Tel. 562-943-1456

나라정비 ASE CERTIFIED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교역자 10% 할인해 드립니다.

매크고 정향환 은행, 오픈뱅크 FDIC

[청지기 프로그램] STEWARDSHIP PROGRAM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지기 프로그램 수혜자 명단 (by Open Stewardship Foundation)

- Agape Home Mission
-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 Asian Pacific Residential Treatment Program (APRTP) Special Service for Group (SSG)
- Asians for Miracles Marrow Matches
- Baja Healing Mission
- C.O.R.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 CCKI (dba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 Christian Counseling Services
- Circle of Friends in Love
- Family Saver Center
- Gilgal Recovery Ministry
- Green Pastures Youth Center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 Home on the Green Pastures
-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 ISAAC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 Joycenter for the Disabled
- Korean American Education Research Center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 Center
- Korean American Mission Center For Addition Recovery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KAWA 한인여성회)
- Korean Bible Mission
-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 Korean Resource Center
- KYCC
- LA Mom and Dad Mission
- Los Angeles Symphony
- Love in Music
- Midcities Korean-American Senior Assoc.
- Miju Holy City Movement
- Milal (Wheat)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Camp Agape)
- Mom and Dad Mission
- Nanum Corean Cultural Center
- New Hope Mission
- Orange County Korean U.S. Citizens League
- PAVA (Pacific American Volunteer Assoc.) World
- Rainbow Family, Inc.
-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Shalom Center)
-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 Shalom Life Line
- Somang Society
- St. Barnabas Senior Center of Los Angeles (dba St. Barnabas Senior Service)
- The Open Academy
- The Well Mission
- United Job Creation Council
- Vessel of Grace, Inc.
- Vision Care Service West
- Watered Garden Mission for the Physically Challenged
- Wesley Music Ministries (dba LA Korean Youth Orchestra)
- World Share
- Young Nak Outreach & Transformation (YNOT) Foundation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2005년 First Standard Bank로 설립된 후 오픈뱅크로 이름을 변경하고, 동 재단은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중매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Open Stewardship 재단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속을 연장 강화하여 나아가서는 전 미주 사회 건강과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Reward Reception 3월 28일 6시 오픈뱅크 1000 Wilshire Blvd., Suite 100, Los Angeles, CA 90017 | 213.892.9999

open bank www.myopenbank.com

LA 온 힛서뮤직 유지연 대표, K-CCM 한류 열풍 꿈꾼다



한국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로 이름을 날린 힛서뮤직 유지연 대표

크리스천 음반사 힛서뮤직 유지연(61·영어명 데이빗) 대표를 처음 만났다. 지난 1일 LA에 막 도착했다는 그의 모습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회색 중절모를 멋스럽게 눌러 쓴 영락없는 중년 신사다. 특징이라면 사물에 대한 통찰력이 예사롭지 않다고 할까. 그리고 가슴 언저리에 있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모양의 작은 배지가 유난히 인상적이다. 그는 한때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7.80년대 한국 최고의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로 인정받으며 정태춘과 박은옥, 신형원, 김병룡, 이선희, 임지훈, 윤형주, 김창완, 김종찬, 길은정 등 포크&팝 장르 가수들의 음반에 프로듀서 및 편곡과 연주로 참

여했던, 실력있는 뮤지션이다. 싱어송라이터로서 1980년대 초반 인기를 모은 '사랑과 평화'라는 곡을 제작해 직접 부르기도. 이렇게 '잘 나가는' 아티스트였던 그가 돌연 하나님 일을 하는 기독교사업가로 전향하게 된 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난 그는, 일신의 부귀영화에 안주하기보다 사람들에게 음악이라는 자원을 제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싶다는 비전을 지니게 됐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래서 89년 '두란노 경배와 찬양'의 초대 뮤직디렉터로 사역하며 '전하세 예수' 1-4집 음반 편곡과 연주를 담당했다. 이때 '예수전도단'과 '다윗과 요나단' 등 1백여 앨범이 그의 손을 거쳐 나왔다. 그의 이러한 헌신이 밑거름이 돼 그간 복음성가로 일관돼오던 한국 교회음악의 패턴과 흐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그의 족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1994년 크리스천 음반사인 힛서뮤직을 전격 설립해 전 세계 워십뮤직을 한국에 알리고 보급하는 일에 매진했다. 힐송과 빈야드, 인테그리티, 킹스웨이, 지저스 컬처, 새들백처치, 벨엘처치, 디스커버리 하우스 등 내로라하는 외국 메이저 레이블을 처음 한국에 소개한 이가 유 대표다. 한국교회에서 주로 불리우는 곡들 가운데 7할이 외국 번안곡인데, 이 중 9할이 힛서뮤직을 통해 보급됐으니 말 다했다. 뮤지션으로서뿐 아니라, 한 회사를 경영하는 CEO로서도 성공한 그에게도 시련은 분명 있었다. 워낙에 기독교 음반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터라 17년간 음반회사 대표 자리를 사수해 온 것만 해도 어찌보면 용하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뚝심있게 버티내는 그만의 근성이 한 몫 했지 않았을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다는 것이 그의 비즈니스 철학이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기독교적인 색채가 물씬 풍기는 '힛서(Fisher)'로 정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Fisher)가 되게 하리라(마4:19)라는 구절에서 따다. LA를 방문한 건 기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년 전부터 미국의 다양한 기독교 컨텐츠들을 기획, 제작하는 일은 물론 배급, 유통하는 사업을 위해 자주 왕래해 왔다. 그런 유 대표의 눈에 비친 현재 LA 기독교문화의 현주소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도. 최근 오랜만에 기타연주와 말씀노래를 담은 앨범 <오 할렐루야>를 발표한 그는 미주 한인교회내 기독교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곳 LA에도 커피 마시면서 젊은 기독교 청년들이 음악을 들으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말하자면 '크리스천 멀티카페' 개념의 문화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높은뜻푸른교회 예배담당 장로인 그는 올 하반기 가요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라한다. 또 2013년 들어 한국의 모던워십과 연주음악 등 K-CCM을 개발해 아시아 10개국의 기독교음악 시장과 현지 교회들을 타킷으로 이미 런칭을 시작했다. 한류열풍과 K-POP의 흐름에 발 맞춰 K-CCM의 한류 프레이밍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꼭 힛서뮤직의 아티스트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천 뮤직에 열정과 비전을 품은 역량있는 음악인들을 하나둘씩 발굴해 나감으로 K-CCM의 세계화 비전을 현실화(化)해 나갈 것입니다." 정하나 기자



남가주 최초로 열린 제1회 미사마 대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다.

>> 기사 1면에서 이어짐 주광염교회), 설교 박보영 목사, 헌금 양팀이 경배와 찬양을 이끌었다. 기도 박영집 장로(교협 이사장), 축도 한편, 박보영牧사는 중앙대 의대를 나와 서울에서 피부비뇨기와 병원을 운영하다 30대 후반에 목회자로 진행됐으며, 나성순복음교회 찬

가 됐다. 그는 소위 잘 나가는 의사로 활동 중에 심장마비로 1년 동안 병마와 싸우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후 의사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재산 수십억원을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대학원을 졸업 후 교회를 개척해 세상에서 버림받은 고아 및 아동들과 함께 살면서 노숙자들을 도우며 살아왔다. 박보영 목사는 현재 전 세계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및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의 집회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7만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할아버지는 감리교 성자로 불리는 고(故) 박용의 목사이고, 아버지는 부흥사인 박장원 목사다. 교회연합과 대부흥을 위해 열린 이번 대성회는 남가주교협과 OC교협을 주축으로 각 지역교협 및 목사회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평가다. 토마스 맹 기자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Includes phone number 323-735-6365, address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and services like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rental. Includes contact info for Fleet Manager Usajyk, phone 213-276-8959, and email usajyk@gmail.com.

Large advertisement for a church conference titled '장재효 목사 초청 춘계영성집회'. Includes dates (March 15-17), location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and a list of speakers from various seminaries and churches.

기글리오 목사 “2700만명에게 자유 주기 위해 연대해야” 역설

‘미디어 금식’으로 현대판 노예제 폐지 촉구



조지아 돔에서 열린 <패션 2013> 컨퍼런스에서 설교하고 있는 기글리오 목사

루이 기글리오 목사(패션시티교회)와 노예제 철폐를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인 ‘엔드잇(End it)’ 지지자들은 2월 27일, 노예처럼 살고 있는 2700만명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 하루종일 미디어 금식을 했다. 기글리오 목사와 지지자들은 이날 하루 종일 사이트의 기능을 임시적으로 중단하고, 최근 곳곳에서 인간성이 침해받고 있는 내용을 다룬 동영상 링크만 올려 놓았다.

기글리오 목사는 검은색 바탕의 사이트에 “오늘, 우리는 사라졌다”는 문구를 올렸다. “사창가에서, 공장에서, 채석장에서, 노동은 노예와 같다. 161

개 국가에서, 미국을 포함해 오늘, 우리는 이들의 삶에 참여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우리 웹사이트에서 침묵한다. 내일은 어둠 속의 빛과 같이 빛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라고 적어 놓았다.

기글리오 목사는 최근 찬양사역자 크리스 탐린(Chris Tomlin), 카리 조브(Kari Jobe)와 함께 전 세계를 돌고 있다. 이른바 ‘버닝 라이트 투어(Burning Lights Tour)’가 지난 주에는 뉴욕 메디슨 스퀘어가든(Madison Square Garden)에서 열렸다. 1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루

이 기글리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노예제도에 대한 궁극적 폐지론자이자 원조 폐지론자였다”며 “이는 전 세계적인 노예제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세상에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전했다.

또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목소리를 내길 원한다. 학생들이 단지 돈을 모을 뿐 아니라, 각 나라가 어떤 조건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돕길 원한다”면서 “한 사람이나 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현대판 노예제를 알릴 뿐 아니라 이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영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글리오 목사는 최근 조지아 돔에서 열린 ‘패션 2013’ 컨퍼런스를 이끌었다. 이 컨퍼런스에는 약 6만여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석했으며,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는 2700만명의 남성, 여성, 아동들을 돕기 위한 자금이 약 30만불 가량 모였다.

그는 “이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사랑의 능력에 대해, 이 능력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변화시켜내는지에 대해 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미주감신대, ABHE 준회원 자격 얻어

美 우수 대학들과 학점 교류 가능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MTSA)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개최된 ABHE(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기독교 대학 인가 기관) 제66차 총회에서 준회원 자격(Candidate)을 획득했다.

학교 측은 지난 12일 ABHE 인가위원회에서 다수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주감신대에 대한 자격 여부에 대해 심의에 들어가 이전의 지적된 사항들의 시정 여부,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 평가 절차상의 차별성과 등록 계획, 도서관 확충을 위한 엄격한 검증을 실시해 준회원의 자격이 있음을 결의했고 15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미주감신대는 미주 지역의 목회자 양성을 위해 기독교대학연합회 총회에서 인준한 교단 신학교로서 미주 지역의 한국 감리교회를 섬기고 미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경쟁력 있고 헌신적이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감리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1996년 LA에서 설립됐다. 2009년 2월 ABHE 인준을 위한 지원 자격을 획득한 후,

미주감신대는 ABHE의 인준 기준에 부합한 학사 운영과 행정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이번 총회에서 준회원 자격을 얻게 됐다.

학교 관계자는 “ABHE 정회원과 준회원이 받는 혜택은 거의 동일하다. 이번 준회원 인가를 통해 대학으로서 기본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은 것이며, 미국 내 우수 대학들과의 학점 교류가 가능케 되었고, 또한 학생들은 이를 근거로 연방 정부 학비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기형 총장은 “웨슬리 정신을 따라 미국에서 감리교가 번창해 왔다.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과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길 바란다”며 “한국에서 순교하신 아펜젤러 목사님과 같이 생명을 걸고 인디언족인 나바호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펼치고 있는 장두훈 선교사, 그리고 한명수 선교사, 임태일 선교사, 모니카 리 선교사 등이 활발한 선교를 펼치고 있다. 계속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교육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전 세계 소외 여성들을 위해 한인 기독교여성들 한 자리에



2013년 세계기도일 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포즈를 취하고 있다.

>> 1면 <세계기도일>에서 이어짐

한국에선 1922년 감리교 선교사를 통해 소개됐고 미주 한인교회에선 1979년 처음 소개돼 미국교회 여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1984년 KCWU가 조직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미 전역에 걸쳐 4백여 한인교회 여성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매년 70여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KCWU 최미란 회장(밸리연합감리교회 권사)의 사회로 드러진 이날 예배는 ▷인사 ▷부름과 응답 ▷감사와 찬양 ▷죄의 고백 ▷묵상과 선포 ▷말씀과 묵상 ▷봉헌 ▷중보기도 ▷과송과 축복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는 성광장로교회 이상훈 목사가 ‘겸손과 섬김’이란 제목으로 전했다.

최미란 회장은 “다른 나라와 다른 교회의 신앙경험을 함께 나누고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세계기도일의 취지”라고 소개하면서 “기도와 행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2014년 세계기도일 예배 기도문은 ‘사막에 흐르는 시내’라는 주제로 이집트교회 여성들이 작성한다. 정하나 기자

개신교가 가톨릭에 비해 종교적 신자 비율 고

>> 1면 <히스패닉>에서 이어짐

나이대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미국 내 히스패닉들 가운데 50~65세 사이의 연령대에 속한 이들 중 60%, 65세 이상 중 61%가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답했다. 반면 18~29세에 해당하는 가장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29%만이 스스로를 가톨릭이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28,607명의 히스패닉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95% 신뢰도에 1%

내외의 오차를 갖는다.

갤럽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미국 내 히스패닉들의 평균적인 종교성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개신교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1년 비슷한 조사를 진행했던 바나그룹의 조지 바나 씨는 “히스패닉과 가톨릭교회와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 이민 온 많은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처음에는 가톨릭과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개신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신디 김 기자

Advertisement for Kut Morning Insurance (굿모닝 보험)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evin Yoo.

Large advertisement for Los Angeles ORT College featuring a list of courses, contact info for Grace, and a map of the Los Angeles area.

한상원 목사 “새로 개척하는 마음인데 아주 재밌네요”



한상원 목사

웨스트 LA 한인교회

제8대 한상원 목사 취임

성숙한 교회 성숙한 신앙이 목표

큐티로 붙들리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

전공 살려 큐티하는 공동체 만들 것

UCLA 인근에 위치한 웨스트 LA 한인교회가 제8대 담임목사 한상원 목사를 청빙, 오는 17일(주일) 오후 3시 전격 취임예배를 드린다.

지난 1년간 담임 목사직이 공백으로 남아있던 웨스트 LA 한인교회. 후임 목회자를 찾으려 청빙위원회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쉬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다 청빙위는 아예 방식을 바꿨다. 교계 명망있는 목회자에게 찾아가 추천받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맡을 후임자를 찾기로 뜻을 모은 것.

동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스티브 모리슨 장로는 박희민 목사(미주성서회화동본부 대표)로부터 한상원 목사(솔라그리타 대표)를 소개받고 두 번의 주일설교를 통해 담임목사로 확정되었다. 이같은 인연으로 17일 취임예배에서도 박희민 목사가 설교자로 초청돼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한상원 목사는 솔라그리타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면서 큐티세미나와 목회자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 등 유수한 세미나 강사로 활약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0년대 후반 서울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를 거쳐 뉴욕과 LA 두란노서원 대표를 역임, 미주에서 포틀랜드 온누리교회를 맡아 시무한 바 있다.

한상원 목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큐티를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계획”이라며 “크리스천의 경건생활 중 무엇이 최우선이라고 묻는다면 단연 큐티라 답하겠다. 전교인이 큐티를 통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싶은 바람”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한 목사와의 일문일답.

청빙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웨스트 LA 한인교회 담임으로 오게 된 것은 내 의지나 생각이 아니었다. 사실 그 교회가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도 몰랐다.

박희민 목사의 추천으로 두 번의 설교를 하고 이 교회에 오게 됐다. 솔라그리타 미니스트리를 통해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을 체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방침이다. 하나님의 허락 전제하에 목회 사역에도 늘 생각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때마침 기회가 닿아 이렇게 오게 됐다.

앞으로의 목회 방향성은

지난 2월 1일 새벽예배 설교부터 시작했다. 올해 모토는 “치유와 회복”이란 주제로 정했다. 제가 이번에 제8대 담임직을 맡게 된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들이 잠깐 계셨다가 떠나면서, 그리고 담임직이 공석으로 있으면서 성도들이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무엇보다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다.

교회 비전은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숙한 교회다. 우선 치유 목회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잃었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서울 온누리교회와 포틀랜드 온누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행복한 공동체란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깊이 경험했다.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그림이 내 안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배소서 4장에 나오는 것 처럼, 어린 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을 지향하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신앙의 성숙은 야고보서의 전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성숙한 교회로 우뚝 서 웨스트 엘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바람이다.

-그간 큐티 관련 세미나도 많이 하셨던데

큐티 세미나와 일대일 제자양육 세미나를 평신도뿐 아니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지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 5세 아동부터 95세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전 교인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울 계획이다.

고 1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 큐티를 통한 제자훈련으로 목사가 됐다. 그래서 누구든지 큐티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다. 특히 2세 자녀들 가운데 대학생이 되면서 방향하는 경우가 많은데, 큐티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면 이것이 평생 간다. 그래서 조만간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요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망을 걸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선 새벽기도회에 집중하려고 한다.

한 성도분이 교회를 새로 개척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절대 공감한다. 재미있게, 아주 신나게 해 나갈 계획이다.

>교회 주소: 3840 Grand View Blvd. LA, CA 90066

>문의: (310) 397-2741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 삼일절 기념예배 “기독교 정신 이어받아 애국자들 나와”

제 94주년 삼일절 기념예배가 남가주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 주관으로 1일 오전 LA한인타운에 소재한 한미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기독교와 3·1운동의 재조명’(출3:6-10)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이운영 목사는 “삼일절은 일제 강압에서 벗어나고자 한 여인이 대항한지 94년째 맞는 뜻깊은 날이다. 과거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 중에 한국과 같이 복음이 많이 전파된 곳이 많지 않다. 한국은 이제 명실공히 복음을 위한 나라로, 세계 가운데 우뚝 서게 됐다”며 “한국에서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을 통해 수많은 인재가 키워냈다.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3·1운동의 주축을 형성한 것을 보게 된다. 이들이야말로 진정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들이었음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기념예배는 사회 정중윤 목사(수석부회장), 대표기도 서요한 목사, 말씀 이운영 목사, 독립선언서 조준석 목사, 광고 광부환 목사(총무), 축도 김사무엘 목사(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목사회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LA한인타운에 위치한 다호갈비에서 한미기독교교회관 건립에 필요한 기초자금 마련을 위해 일일식당을 개최한다.

교회 건립을 공동 추진하는 남가주한인목사회와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남가주한인장로협의회 등 3개 단체는 사무비용 외에는 모금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단체 및 기업가들로부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스미션대 ABHE 정회원 자격 획득



그레이스미션대학 최규남 부총장(사진 오른쪽)과 김현완 학장(왼쪽)

그레이스미션대학(GMU, Grace Mission University)이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ABHE(T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66차 총회에서 정회원 자격을 인준 받았다.

이 대학은 ABHE와 TRACS의 정회원, 그리고 ATS의 조회원 자격을 모두 획득함으로써 기독교 최고의 모든 학력인준기관들의 인준을 받았다. 따라서 모든 학위와 학점은 미국의 유수 대학들과 교류가 가능하다.

이 대학에 따르면 한인 신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선교학박사(D.Miss.) 과정을 TRACS에서 정식으로 인준을 받아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현재 연방정부 학비보조와 융자를 받음으로 자격이 되는 대학부 학생들은 거의 풀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밖에 TA(군인학비보조)가 제공되며, 많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없이 공부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1-20가 발행돼 많은 유학생들이 오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70%가 넘는 왕성한 사역력을 보이고 있으며, 오렌지카운티 플러튼의 한인 밀집 지역에 26에이커나 되는 정원이 있는 넓은 부지에 위치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현재 학사과정(BA, 4년), 석사과정(MA, 2년), 목회학석사과정(M.Div, 3년), 선교학박사과정(D.Miss)을 운영하고 있다.

김현완 학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교를 위해 영적지도자들을 양성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증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물질상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이사진, 교수, 직원, 학생, 후원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토마스 맹 기자

West LA Korean Church 8th Pastor Installation Service Invitation. Includes details on date (March 17, 2013), location (West LA Korean Church), and a list of services (8:00 AM, 9:30 AM, 11:00 AM).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고린도전서 2:6-1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설교를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와 라디오, 컴퓨터에서 읽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포장만 하나님의 말씀일 뿐 그 속에 사람의 생각과 편견을 피력하는 사람의 말이 너무나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을 알차고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가꾸어 결실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라(딤후 4:3-4)”고 했습니다. 지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 말, 행동으로 거듭나고 성숙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사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자기 입장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말과 사람을 찾아서 좇아 다닌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온전한 자들’이란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 중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추어 두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 지혜를 그 시대의 관원들조차 하나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일 유대 관원들이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나 또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사,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다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지혜, 영감적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만든 장본인은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토라를 외우다시피 하며, 남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자기는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 복종하게 만들려고 했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외식은 신앙을 마태복음 23장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일곱 번이나 저주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시키실 목적의 경영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신앙고백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 받고 성령에 이끌리어 이 세상을 기대하지 않

고 하늘소망을 가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고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며 섬기기를 힘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귀로도 들어 알아차릴 수 있는 곳도 아니며, 또 믿음으로 연구해서 짐작할 수 있는 곳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계획과 비밀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을 통해 다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조건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들로 억울하고 괴로운 입장을 누군가를 붙들고 호소하고 호소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 걸기보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 모든 상황들을 깨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은 내게 다가오고 있는 사정과 형편, 처지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 억울하고 불행한 것을 당하는 원인까지도 다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6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와 아나 바세바를 취한 일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로 인해 침상을 적시고,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을 받았습시다. 그 성령이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신령한 소망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며 말씀에 대한 기대가 간절해지면서 그 말씀에 기대를 걸고 복종하며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16-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본문 13절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니라” 함

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입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면 그 말하는 의도와 목적이 자신의 명분과 이득을 챙기자는 것으로 귀착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꾸며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짓 포장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 얻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진짜 성령으로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사람이 제멋대로 떠드는 말인지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를 모으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이단이 난무하는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13-14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 박사학위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가르치는 말에 신앙인으로서 기대 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지혜를 없애지게 만드셨고 명철과 총명이 가리워지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춰질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끌리어 쓰임받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생각만 예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지 정작 생활은 세상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육심 부리고 감정에 이끌려서 원수 맺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도 알아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지독하게 고집부리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계속 육에 속하여 살다가 지옥 가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오히려 미련하게 보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인생이 생기와 소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기운 없고 힘들어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룩하신 구속 사역의 계획을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일이 없습니다.

회개(悔改, repentance)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던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으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의 죽음이 먼 훗날이라고 생각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나를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다양하게 써주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알곡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국 선교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시반 / 동부 오후 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I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AMI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교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I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담임장, 성은동산 원장, 예정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2013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1-20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niv.org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장: Sevs I-20 발행 / 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캘리포니아 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Fax. 818-435-2441
 www.mycyu.us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E-mail. hjung3155@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7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310-793-2285 Fax. 310-793-2297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김영화 목사 학무: 최영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Fax: 310-609-1415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org

2013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금 매일수강 및 실습을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3월 19일 2013년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South Bay Work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장업을 지원함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문으로도 할 수 있음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윌셔 + 웨스턴)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골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미국 한국여자선수들 대회마다 상위랭크, 양용은 동양인 최초 메이저 대회 우승, 최경주 미PGA서 꾸준한 성적. 귀하의 자녀도 이런 선수들 이상의 골프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일단 자녀의 잠재력을 보시고 골프를 가르쳐 보십시오. 우리나라 탑프로 95% 이상이 부모의 골프조기 교육 및 반 강제성의 권유에 의해서 발굴되었고, 타이거우즈 역시 만 5세부터 부모에 의해서 골프를 시작해 지금에 왔습니다.

골프를 하면 어린이 성장발육, 성격교정, 근력향상,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대상 : 7~11세 (K-TOWN 픽업가능)
- 모집인원 : 선착순 한정 모집
- 수업방법 : 주 2~3일

문의 : 310-598-0746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연목회, 선교 영적 각성집회 개최



양국주 선교사

남가주 연세동 문목회교회(회장 김영일 목사, 이하 연목회)는 오는 10일 오후 5시 나 성동산교회(한기형 목사)에서 '선교 영적 각성집회'를 개최한다. 강

사로는,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제 3세계 구호활동을 펼치는 민간 구호단체(NGO) '열방을 섬기는 사람들' 국제대표 양국주 선교사가 나선다. 대내외 언론을 통해 활발한 집필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부의장직을 섬기고 있기도 하다.

주님의영광교회 서울 캠퍼스 개척에 나선다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한국에 캠퍼스 교회를 시작한다. 주님의영광교회는 최근 "서울 사당동에 '주님의영광교회 서울 캠퍼스'를 세울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캠퍼스 초대 목사에 배종원 목사가 선임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담임 신승훈 목사는 한국과 미국을 6개월간 오가며 교회 개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교회 측은 한국으로 귀국한 교인들을 위해 직접 한국에 가서 1년에 수차례 수양회를 개최해 왔다. 앞으로 이 캠퍼스는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도 사역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교회 측은 "평소에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문의: (310) 370-5500

KCCC USA 3백 기독교청년, 여름 단기선교 위한 헌신 다짐



KCCC USA 3백여 기독교청년 학생들이 올 여름 단기선교를 위한 헌신을 다짐했다.

"선교는 삶이다"

부르심과 세우심 위해

잃어버린 영혼 찾기 위해

기독교청년들 대거 헌신 결단



김동환 목사

남가주 3백여명의 한국대학생선교회(KCCC USA) 소속 기독교청년 대학생들이 선교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일과 3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메시지를 전한 KCCC USA 대표 김동환 목사는 "선교가 삶(Life)이 돼야 한다"면서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청년들은 올 여름 선교에 대한 헌신을 결단했고, 이는 LA뿐 아니라 산호세 새누리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UC버클리, UC데이빗 등지에서 모인 1백여명 청년 대학생들이 선교 헌신을 결단했다. 또 같은 시각 샌디에고사라교회에서도 3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기도의 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동환 목사와 일문일답.

-이번 여름선교가 예년에 비해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주제는 커미션드(Commissioned)다.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았고 세우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교는 우리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간 미주 각 지역별로 진행됐던 선교가 KCCC USA 본부를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미주 10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협력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

남선협 <위로의 날> 행사 개최, 미 체류 선교사 가족에 안식 제공



단체촬영에 임하는 <선교사 가족 위로의 날> 행사 참가자들

남가주선교단체협의회(이하 남선협, 회장 박영국 목사)는 <선교사 가족 위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달 24. 25일 양일에 걸쳐 팜 스프링스에 위치한 에메랄드리조트 온천장에서다.

이번 행사에는 캐나다를 비롯 몽골, 인도, 라오스, 태국, 중국 등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다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체류하던 선교사 가족 41명이 참가했다. 특별히 이번 행사를 위해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가 후원했고, 남선협 임원들이 힘을 보탤다.

이 기간 중 감사로 초청된 이승중 목사(KWMC 대표의장, 어깨동무사역원 대표)는 ▷부르심과 예수회복(눅

KUMC 남가주 목사기도회 월례회 개최

황승일 목사 "산 위의 체험과 산 아래 목회 잘 감당하자"

한인연합감리교회(KUMC) 남가주 목사기도회(회장 박용삼 목사)가 매달 한 번씩 여는 기도회를 지난 24일(일) 오후 6시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황승일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누가복음 9장 28-36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황승일 목사는 "목회자의 자기 관리에 있어 제일 어려운 것은 일관성과 불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나에게 자비로운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있는 반면, 짜증 내거나 냉정하고 날카로운 모습도 있다. 자기 내면의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에서 갈등을 느끼곤 한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산 위의 체험'과 '산 아래 목회'를 감당하고 있다. 부디 기도

미주 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 주최 교육부 세미나 열린다

미주 남침례회한인교회 총회가 주최하는 교육부 세미나가 오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토론펬스조은교회(김바울 목사)에서 열린다.

"T4T를 통한 교회 부흥과 성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EM 및 평신도 리더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의: (310) 370-5500

2013 국제기독교연론편회 내슈빌에서 막 올려

세계 최대 기독교방송박람회인 '2013 국제기독교연론편회(2013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NRB)가 4일 테네시 내슈빌에서 개막했다. NRB 대표 프랭크 라이트 박사는 박람회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소개하면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CCC USA 3백 기독교청년, 여름 단기선교 위한 헌신 다짐

신다면 인생의 목적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사랑은 육체적 사랑일 뿐 아니라 하나의 '환상'이다. 참된 사랑은 선택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랑이다. 젊은이들이 선교를 통해 소중함을 하나씩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젊은 시절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보지 않는다면 세상을 이길 힘을 경험하기 어렵다. 세상은 날로 우는 자처럼 청년 기독교인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간접 휴연을 하듯 공기 속에 피할 수 없는 죄의 영향력이 넘쳐나고 있다. 어떻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지도 배워야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는 복음 안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선교를 통해 삶의 본질을 배우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문의: (213) 389-5222

남선협 <위로의 날> 행사 개최, 미 체류 선교사 가족에 안식 제공

2:41~50)과 ▷부르심과 관계성 회복(말4:6)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소명의식을 고취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도전했다.

이밖에도 남선협은 선교사들을 배려해 안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가족별 게임을 비롯한 각종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아무 걱정없이 마음껏 쉴 수 있어서 좋았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며 다음 사역을 위해 안식할 수 있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지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웠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져 참 기쁘다"면서 소감을 전했다.

남선협은 남가주 일대 35개 선교단체간 연합을 도모하고 각종 사역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물론 지역교회와의 선교 협력을 위해 조직된 연합단체로 매달 두 세 차례에 걸쳐 <선교사 가족 위로의 날>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문의: (562) 972-7702



스마트 월드

건강용품 전문점

타주 무료배송!
2년 무이자 할부 판매!
엘에이 총판 딜러십 획득

www.Gosmartworld.com

후지타만에 강력한 특성!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됨

FUJITA
2013 최신형
KN9003

★★★★★

5 year WARRANTY

전문 안마사에 안마를 원하십니까?
후지타 전신 마사지체어를 만나세요



NEW

세계 유일한 전신 마사지체어
머리 끝에서부터 발 끝까지!
허리. 어깨. 교정 시스템

머리 뒷골 및 머리 안마를 시원하게 함
세계 유일의 머리 안마 시스템!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환상적 어깨 3 회 10초씩, 허리 3회 60초씩
전문 타이 스트레칭!
허리디스크, 자궁 신경통 교정에 최고!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양 팔과 양 발을 동시에 지압
3 단계 강약 조절을 선택할수 있음!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후회 없는 최고의 선택
성과와 기능은 세계 최고!
가격은 타사 제품의 반값!

에어 전신 스윙 안마
차별화된 안마에 대만족!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세계 유일한 발바닥 롤러 마사지 시스템
발바닥이 엄청 시원해요!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전자파 없는 원적외선 온열시스템으로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최고!
면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후지타만에 완벽한 기능

무료 체험 환영합니다!!
바른 선택은 구입후 후회나 속상함이 없는 행복의 시작입니다

Fujita KN9003	\$4,200	비교	Inada-Sogno	\$8,000
Fujita SMK9100	\$4,300	VS	Panasonic MA-70	\$7,000

Fujita 을 선택한 순간 최고의 가치와 만족을 누릴것입니다



Rodeo 자동승마



Rodeo Core Exerciser



손안마기



Vitality - 지방분해 운동기구

세계 유일한 플옵션 전문 전신 안마용!
베스트 셀러!

★★★★★

FUJITA
Model: KN9003
Retail: \$6,499

SALE
35% OFF

+Tax
Sale: \$4,200

노약자 및 재활치료용

FUJITA
Model: SMK9100
Retail: \$6,999

SALE
38% OFF

+Tax
Sale: \$4,300

일반 DAILY 마사지용

FUJITA
Model: SMK8800
Retail: \$4,600

SALE
60% OFF

+Tax
Sale: \$1,800

스포츠 전문 마사지용

Osaki
Model: 7200H
Retail: \$4,600

SALE
21% OFF

+Tax
Sale: \$3,795



안전 운전이 필수품!



음미는 핸들커버



발 마사지 지압



EZ-BIKE



STEP & STEP



미백 / 어깨 통증 치료기



스윙 허반신 흔들이



Ninja 어깨 목원마기



발진통 마사지



Heaven Fresh 알카리 이온수



취주 교정용



육각수



음이온 공기 청정기



Solar-수지침 손마사지



부엌 / 화장실용



Heaven Fresh



거실용



Room



차량용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제337회 조찬기도회서 간증

‘11년간 무려 3백명...’ 전도왕 김인태 집사가 말하는 전도 비법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왕 타이틀을 11년째 고수하고 있는 김인태 안수집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요21:16)”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말씀이 도전으로 다가온다. 저마다 주께 받은 사랑을 돌리기 위해 주님의 사랑하는 양을 먹이는 일, 바로 전도에 힘쓰길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받은 사랑을 돌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나요? 무슨 뽀족한 비법이라도 있나요?” 하고 말이죠.”

올해로 11년째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왕 타이틀을 고수하고 있는 김인태(54) 안수집사의 말이다. 그는 올해 들어 벌써 11명을 전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그런 그가 전도에 대해 하는 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두 번씩이나 넘겼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렸던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만 해도 사울처럼 성경을 7번이나 찢었던 흉악한(?) 인물이었다. 그뿐 아니다. 찢은 성경 종이로 담배까지 말아 피웠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180도 변화된 전도자의 모습으로 살아온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지난 2일 오전 나성순복음교회 전도회연합회(회장 박우진 집사) 조찬기도회에서다.

“하루는 기도원에 가자는 아내의 간곡한 애원을 뿌리치고 겨울날씨 하러 갔더랬죠. 근데 그만 얼음이 깨져 호수에 속 빠져 버리고 말았어요. 살겠다고 허우적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얼음은 연신 부서져 나가고 서서히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던 바로 그 때였다. 불과 0.1초 사이에 여지껏 지나온 38년 인생이 형광등처럼 ‘반짝’ 하고 지나갔다.

그리고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이전에 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동안 제가 꺾박했던 사람들 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였다. 그 기도를 마치자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제 팔을 놓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찰나에 누군가 허리 뒤에서 두 손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신기했다. 그곳에는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 두 손이 그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렇다. 이 보이지 않는 힘,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는 다시 살아난 것이다. 물 밖에 나온 그는 10분간 얼으려 툭툭하며 기도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한 이후,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철저히 바뀌게 됐다. 영혼 구원의 열정에 휩싸여 하루라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행복한 전도자가 된 것. 새벽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자신이 알게 된 단 한 영혼도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다.

2002년 도미해 5월부터 나성순복음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과 6개월만에 전도왕이 됐다. 그리고 이후 한 번도 전도왕 타이틀을 놓쳐본 일이 없다. 정말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맛을 보아 안 사람이기 때문일 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 “
-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 고수가 말하는 3가지 전도 비법
 - ▷서원하라
 - ▷손해보라
 - ▷덕을 끼치라
- ”

전도요?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전도는 습관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집에 있을때나 일을 할 때나 운전할 때나 늘 전도의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남같이 해선 남 이상 될수 없다.’ 삶의 습관 자체가 전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우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다음 ▶손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타인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꽃감을 따먹지 못해도 정성스레 말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듯 전도할 때도 하나둘씩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다보면 이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았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코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만 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으로 그는 “부족하지만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끈질기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결실을 주신다”며 “오늘 비록 결실이 없더라도 절대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도전받겠다고 할 때마다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인태 안수집사의 간증집회를 원하는 교회는 본보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213) 718-1512

이인규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알사는 젊은스타일에서 살아있는 곳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컬러 \$30 up \$10 up
*단, 컬러만 하시면 \$3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미주 목자교회·라이마미션·엘리아대학
스페인어 베다니교회서 선교대회 개최
학위식 및 목사안수·선교사 파송식도 거행



라이마미션 선교대회 주요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최근 출범한 미주 목자교회를 중심으로 라이마미션(대표회장 이길소 목사)과 예수야대학교(총장 현베드로 목사), 에녹대학교(학장 김철수 목사), 엘리아대학교가 지난 1-6일 스페인어 베다니교회(Iglesia Gloriosa de Jesucristo)에서 선교대회 및 학위식을 개최했다.

이 기간 중 많은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중남미 각국은 물론 일본 등지에서 참가한 현지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세미나와 목사안수, 선교사 파송, 임명식 등이 열렸다.

미주 목자교회는 ‘선교와 교육’이라는 두 축을 이루기 위해 라이마미션(Laima Mission)과 엘리아 대학(Elijah Univ.)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중남미 대륙은 물론 점차 ‘라틴 아메리카화’ 되어가는 미국을 포괄하는 선교 사역지를 바라보고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당초 김철수 목사와 심진구 목사를 중심으로 운영돼오던 엘리아대학을 20여년간 칠레 등 남미에서 선교해온 경험이 풍부한 이길소 목사 등이 합세하면서 남가주를 넘어 멕시코,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6개국에도 대학이 세워져 이를 통해 각 나라별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앞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아이티와 카리브해 인근 국가에도 차례로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이마미션의 ‘라이마(Laima)’는 ‘Latin American Immigrants Mission Alliance’의 약자다. 미주 목자교회의 실질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할 이길소 목사가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어 오랜 기간 목회해온 김청웅 목사가 상임이사로 섬기고 있다. 이 목사는 20여년간 칠레를 비롯한 남미 7개국을 중심으로 선교해온 ‘현지통(通)’이다. 온두라스에는 이 목사와 김 목사가 주축이 돼 세운 고아와 심골말을 위한 소망모자원(Hogar de Esperanza)이 운영되고 있다. 또 과테말라에서는 70여개의 초·중공립학교에 성경과목이 개설되는 등 교사 양성과 교재 발간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길소 목사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이마미션의 정체성에 대해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원주민들과 라틴계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가족과 한 형제로 맞이하여 그들을 ▷복음화하는 일과 ▷증인의 사명자(행1:8)로 그리고 ▷자신들의 흠여져 디아스포라(Diaspora)된 정체성과 각각 등 적합한 훈련과정을 거쳐, 그들의 나라와 부족들의 지도자로 세우는 다민족 자국민 선교운동”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변화돼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며, 자국민 선교사 파송은 인종, 문화,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복음 전파의 효력을 극대화시키는 지구상 마지막 선교 전략”이라며 “라이마미션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 교회가 영국, 미국, 한국교회에 이어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수행할 마지막 때의 선민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그는 말했다.

충현선교교회 후원 서재필 선생 글 출간

〈자주독립 민주개혁의 선구자 서재필〉 출판기념회 열려



지난 2일 오전 충현선교교회에서 '자주 독립 민주개혁의 선구자 서재필'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자주 독립 민주개혁의 선구자 서재필'

서재필 선생의 글을 모은 책 '자주 독립 민주개혁의 선구자 서재필' 출판기념회가 충현선교교회(민중기 목사)에서 2일 오전 열렸다. 책은 충현선교교회 장로회의 재정적 지원과 기도로,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과 김승태 씨가 있고 KIATS에서 번역을 했다. 앞부분은 한글, 뒷부분은 영어로 구성됐다.

이 책은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한국 기독교에 공헌한 사람들의 작품을 엮은 '한국 기독교 지도자 작품선집' 13번째로 출판됐으며, 민주개혁의 선구자라 불린 서재필 선생의 '자주개혁'을 살펴보고 그가 만났던 예수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이날 기념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는 "서재필 박사의 수고로 독립운동의 불길이 사그라지지 않았다"며 "과거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기에 참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는 서평하는 자리에서 "이 작

업을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연관돼 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이 따라간다는 것인데, 제자훈련과 사역훈련, 교회훈련은 결국 성경공부의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제자화된 삶을 산 경우를 찾아봤다"며 "그러다 정치영역에서 제자화된 삶을 산 사람이 서재필 박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정치적인 제자도를 실천했던 사람이다. 후세들에게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2부 순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변영의 목사(한인커뮤니티단체장협의회 회장)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서재필 선생의 증손 서동성 변호사가 인사말을 전했고 2세인 샬리나(Sally Nah), 최경진 학생이 각각 영어와 한국어로 독후감을 발표했다. 기념사는 김재영 목사(ITS 교무처장), 출간 경과보고 및 의의는 김재현 박사(한국고등신학연구원장), 서평은 민중기 목사가 했다.

또한 이날 민중기 목사의 저서 '한국 정치 신학과 정치윤리'가 소개됐으며, 박문규 박사(CIU 총장)가 서평을 했다. 이 책은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과 정치를 중심으로, 말씀에 기반을 둔 '실득과 함의'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다.

토마스 멍 기자

롤린대학교, 학내 성경공부 모임 금지시켜 논란

학교측 "종교 자유 침해 아니다... IVF가 규칙 위반"



롤린대학교 전경

플로리다의 한 대학이 기숙사 내 일반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가 종교적인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근 롤린대학교(Rollin College)는 학교 기숙사 내 공공구역에서 진행되던 IVF(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성경공부 모임을 중단시켰다.

롤린 대학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 대의 협력 담당 로렌 브래들리(Lauren H. Bradley)는 크리스천포스트(The Christian Pos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학교 내 정책을 동등하게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IVF 학생들은 기숙사 내 공공장소에서 만났다. 이 장소는 기숙사 학생들에 의해 자유롭게 사용되는 곳으로, 기독 단체의 정기적인 모임 장소로는 예약될 수 없다. 모임의 성격이 아닌, 공간의 정기적 사용이 문제다. 한 협회에서 비슷한 요청을 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절됐다"고 강조했다.

브래들리는 또한 "IVF는 최근 학생 회원들에 대한 학교측의 비차별 정책에 동의하지 않아 동아리 승인이 취소됐다. 우리는 모든 동아리에 이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그들이 이 정책을 수용하지 않으면 학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자금도 지원받을 수 없다. 또 학내 회원 모집 및 이메일 활용 또는 기타 홍보 활동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안은 종교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리가 대학의 정책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기독인들

이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처럼 비친 점에 우려를 표시한다. 이같은 소문은 거짓이다. 기독인들은 어떤 동아리에서든 회장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 IVF 북동지부를 맡고 있는 그레고리 L. 자오(Gregory L. Jao) 대표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지난 1월 발생했다. IVF 동아리 회장이 Ward Hall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하던 중, 기숙사 관계자가 떠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회장은 Ward Hall에 있는 학생들을 초청해 성경공부 모임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오는 "그 후 대학 측의 동아리 승인은 취소됐지만, 여전히 캠퍼스 내에서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학생들에게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할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일을 돕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측의 더욱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개인적인 학생의 방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기숙사 밖의 의사 혹은 탁자에 앉아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캠퍼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기숙사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기숙사 담당자는 학생회가 이러한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경공부 금지 사건은 IVF가 "학교 측이 대학 캠퍼스의 비차별 정책에 따라, 학내 종교 동아리 회장 선출에 있어 종교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미국 인권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출할 당시 발생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혜진 기자

남가주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용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말-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EM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7:45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말-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영아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 오전 6:30 (말-금)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남가주리더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서건오 담임목사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ia.net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성재복음선교교회

3313 W. Pico Blvd, 2F # A, LA, CA 90019
T. (213) 598-9932, 213) 327-92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주일 EM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최윤형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하나님의교회,사람들의교회,세상속의교회

927 S Menlo Ave. LA, CA 90006
T. (213) 388-1927, 388-2105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김혜성 담임목사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말-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너지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김세환 담임목사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50 새벽기도회 (말-금) 오전 5:25
3부예배 오후 12: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20
4부예배 오후 2:22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17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T. (213) 387-1700 / F. (213) 381-2201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말-금)
오전 7:3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초대교회의가정모임, 성경학교노니나, 만민대상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말-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부설 : Naturo pathy Clinic(말-금)
진료문의 213) 505-7067

대표 김갑선 목사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성교에 흐름, 소.초.진 초의 흐름, 바르네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말-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김기섭 담임목사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 이혼이불복합자며, 이혼이정착지키며, 선교영광을 승송하는교회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www.LASarang.com

1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박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EM) 오전 6:00 (토)
3부 오전 11:30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시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성경공부 오후 1:30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선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12:50 금요일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청년예배 오후 1:45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11:45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마원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1:00
아동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유치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인랜드온누리교회
말씀에 뿌리내려 자라나며 열매맺는 은혜의 공동체

9806 Arrow Rt., Rancho Cucamonga, CA 91730
T. (909) 945-9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전길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찬양부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유니버시티부 오전 11:00

크로스로드교회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되어 영혼구원과 세계선교 비전실현하는 생명의 공동체

2600 Grand Avenue, Chino Hills, CA 91709
T. (909) 627-0201 http://go2cross.org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양성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영아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둘로스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주님과 사명을 뜨겁게 사명하여 섬기는 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EM) 오전 9:45 중/고등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망향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강신권 담임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통)하고 인통(통)하며 문명(통)하여 민사형통함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장미유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할토 오전 5:30am
4부예배 오후 1:15(EM찬양) 수요일예배 오후 8:00
5부예배 오후 3:00(EM찬양)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후 1:00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이성현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할토 오전 5:30 토 오전 6:0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라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2부예배 오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학생회예배 오후 12:00

벤처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리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현경 담임목사
스페인예배 오전 10:00 오후 6:00 (토)
한국어 오전 10시 (힐로우쉽) 수요일예배 오후 7:45
오후 12:00 (분당)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Biz] 건강식품 알고 바로 먹자

“왜? 건강식품은 의약품처럼 제품효능이 박스나 레이블에 표기돼 있지 않을까?”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에는 박스 또는 레이블에 이러한 마크들이 인쇄돼 있다.



세종바이오텍 데이빗 서 대표

“집사님, 어느 성도님이 건강에 좋다고 선물로 건강식품을 주셨는데, 뭘 체크하고 먹어야 하는지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제대로 된 제품을 들여온 것인지, 아니면 원료는 정확하지, 효능은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런 현실이 건강식품을 먹는 우리의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박스나 레이블을 보지 않고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으로만 구입한다든지, 광고만 보고 구입하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한다.

심지어는 미국에 오래 사셨으면서 마트나 그로서리, 약국에서 식품이나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간간하게 따지면서도 막상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는 수습불, 수백불 상당의 비용을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일이 다반사라고 하니 어찌된 일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히 일본의 지진, 쓰나미, 방사능이 자연을 뒤엎어 아무리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무작정 건강식품을 먹기에도 불안한 세상인데도 건강식품의 경우는 정확한 정보를 배제한 채 알려진 광고 내용만을 그대로 믿고(아니 엄밀히 말하면 믿고 싶은 것) 기대감으로 탐석 구입을 한다. 그리고는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속았다고 하면서 화내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한번이라도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그 제품의 박스나 레이블 등 어딘가에 판매원이 말한 선전내용이나 광고에 나오는 제품효능(기능성)에 대해 한 구절이라도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제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다, 당뇨에 도움이 된다, 혈압에 좋다”는 말을 광고나 판매원이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제품의 박스나 레이블에 공인받은 문구나 식약청(KFDA)이 인정

하는 공인인증 마크나 효능이 기록돼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2002년 건강기능법이 도입돼 건강식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식약청이 “원료의 진위여부, 함량의 정확성, 제조공정(GMP), 효능의 공인” 여부를 꼼꼼하게 실시한다. 여기서 합격하면 제품박스에 인증마크와 효능을 표기해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보조식품류와 구별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아직 한 번도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지 않았던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분명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제품효능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반 건강보조식품에는 식약청의 인증로고나 식약청의 마크를 절대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물론, 박스나 병 레이블에 효능이 표기돼 있더라도 단연하다.

LA를 비롯해 뉴욕, 아틀란타 등지에 많은 건강식품이 있다. 그 중에는 한국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때로는 미국에 사는 동포만을 위한 제품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보조식품도 속하다.

또한 일본제품이라고 하면서 일본 현지에서는 판매되지도 않는 제품도 많고, 공인받지 않은 유명 제품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식약청 KFPA)가 공인한 건강식품 즉, 건강기능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통상 일본건강기능식품에는 영양기능식품, 또는 특정정보용식품이라고 하여 박스에 표기돼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보조식품과 이름은 비슷해도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위에서 질문하셨던 목사님은 건강식품이 공인된 기능식품인지 아니면 보조식품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리라. 또한 앞으로는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입소문만으로 구입하지 않길 바란다. 건강기능식품 또는 KFPA 마크가 적혀있는 제품, 또한 표기된 기능성을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건강식품을 구입하는 제대로 된 요령이다. “건강식품 바로알고 드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종바이오텍 본사 (1-877-256-7671), LA (213-383-8899)

>> 기사 1면에서 받음

그는 6-8분 단위로 청소년들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을 다양한 소재를 강연 중 준비해 놓는다고 한다.

셋째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솔직한 것이다. 많은 청소년 사업자들이 자신이 잘한 이야기만 늘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청소년들은 오히려 용기를 잃고 만다. 감사가 차라리, 분노를 감지 못했거나 전도를 안 했거나, 이성을 잃었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게 되면 청소년들은 그를 오히려 깊은 면에서 주목하게 된다.

넷째는, 열정적이며 권위있게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청교도 설교가였던 리처드 벡스터의 말을 빌려 “죽어 가는 사람이 죽어 가는 사람에게 하듯 설교하라”고 했다.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란 점이다. 하나님의 살아 생동력 있는 말씀을 전할 때 열정과 권위는 당연하다.

다섯째는, 전장에 나가는 태도로 준비하란 것이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실제로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렉 스티어 목사



“수많은 청소년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 셀폰 소음 등 다양한 방해물은 물론 사탄과의 영적 전쟁터”라고 강조했다.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섯째는, 청소년들을 강하게 도전하란 점이다. 그렉 스티어 목사 그는 “나는 청소년들에게 ‘너희를 믿는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소리치른다. 그러면 그들은 실제로 용기를 얻고 행동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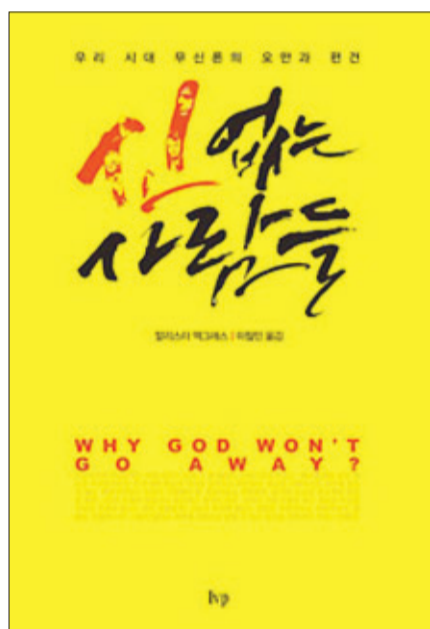
마지막은 신발끈을 꼭 매란 것이다. 강단에 오르기 전, 무릎 근처까지 머리를 숙여 신발끈을 매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낮아짐의 태도로 기도하란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청소년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성령의 개입이 필요하란 점을 시인하란 것이다.



라이마미션 선교사대회 성황리에 막 내려 = 라이마미션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선교사대회를 개최했다. 스페니쉬 베다니교회와 페리스의 감람미션센터에서다. 각종 세미나와 목사안수식, 선교사 파송식이 잇달아 열렸다. 라이마미션의 '라이마(Laima)'는 'Latin American Immigrants Mission Alliance'의 약자로, '라틴 아메리카화(化)'되어가는 미국을 포괄하는 선교 사역지역 보고 현지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 4일 오후에는 남미를 비롯한 7개국 선교사를 맞이하는 환영식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성교회 장재호 목사를 초청해 집회를 개최했다.

종교에 대한 분노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관심 불렀다

〈만들어진 신〉으로 망가진 도킨스 등을 명쾌하게 논박



〈신 없는 사람들〉 알리스터 맥그라스 | IVP | 206쪽

알리스터 맥그라스(Alister McGrath)의 〈신 없는 사람들(원제 Why God Won't Go Away?)〉은 '과학적 무신론자'들에게 전하는 '명쾌한 논박'이다. 특히 〈만들어진 신〉으로 망가진 리처드 도킨스를 필두로 한 '새로운 무신론(New Atheism)' 주장자들에게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운동이 2000년 이후, 정확히는 9·11 테러 이후 갑작스레 등장한 것에 대해 저자는 "사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크게 달라진 바 없으며 여전히 종교가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고까지 주장했는데, 그들의 주장이 갑자기 매력적일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그럴듯하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사람들은 9·11의 책임을 전가할 어떤 대상을 절실히 찾고 있었고, 잔혹한 만행에 분노하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이슬람의 종교 광신주의'는 '종교 광신주의'로, 나중엔 그냥 '종교'로 축약돼 버렸다"고 진술한다.

먼저 종교를 9·11의 주요 원인으로 이해하면서, 〈종교의 종말〉을 통해 종교에 강력한 독설을 날린 샘 해리스에게 저자는 "종교 재판이나 게슈타포, 탈레반과 KGB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응수한다. 맥그라스는 "종교가 폭력과 증오심을 생산해 내기에, 세상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신봉자들을 살해하는 것이 윤리적이라 주장하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며 "샘 해리스가 미국 대통령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재치 있게 대답한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종교 비판과 무신론에 대한 절대적 옹호로 수사적 세련미가 없는 약점을 극복했다"며 "'무신론자들의 사도'라 불렸던 문학자 C. 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견줄 만한 대표적인 무신론 책"이라

샘 해리스부터 리처드 도킨스

대니얼 데닛, 크리스토퍼 히친스

이르기까지 차례로 논박

고 평가(?)한다.

맥그라스는 종교로 인해 일어난 폭력과 억압이 실제로 일어난 점에서 그의 비판을 수긍하지만, 그의 '밈(meme) 이론'이 이미 생물학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널리 인정됐음도 지적하고 있다.

〈다윈의 위험한 생각〉과 〈주문을 깨다〉 등을 쓴 미국 철학자 대니얼 데닛의 주장에 대해서는 "도킨스의 밈 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변론은 별로 없이 그저 신을 고발하는 고소장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한다.

실제 없이 이어지는 경우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모독을 특징으로 하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를 쓴 크리스토퍼 히친스에 대해서는 "그의 거들먹거리려는 문체에 대해 그의 열광적인 지지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지만, 그들은 히친스가 선언했다면 그걸로 충분하고 어떻게 그가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히친스를 일종의 종교 지도자처럼 여기더라"며 "이런 행동은 신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그의 추종자들이 신을 대신해 신뢰하고 경배할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다.

맥그라스는 '종교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과학적'이라는 이 '새롭지 않은' 새로운 무신론을 하나 하나 논박한 후, 최근의 경향을 전한다. "무신론 블로그에는 지적 우위를 점하려던 무신론 운동의 실례를 개탄하는 날카로운 자아 비판이 자주 등장한다. 얽힌 데 달린 격으로, 우리 사회는 종교의 '병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의 분석에 점차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종교에 대한 새로운 무신론의 끝없는 분노는, 뜻밖에도 신과 관련된 문제 전체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저자는 "종교의 종말에 대한 식상한 예언과 종교의 해악에 대한 관습적인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마치 출애굽기 1장에서 꾀박 속에서 번성했던 '히브리 민족'처럼 종교가 여전히 살아 번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2천년 동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의 공통된 이해가, 인간은 신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그토록 강한 매력을 지닌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간의 이와 같은 경험과 바로 기독교의 진리가 강력하게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대웅 기자

인디애나주 대형교회, 재산 압류 소송 휘말려

은행 채무 60만 달러 이상

인디애나주 최대이자 미국 전체 15번째 규모의 대형교회인 '패밀리크리스천센터(the Family Christian Center)'가, 60만 달러 이상의 은행 채무로 재산이 압류될 처지에 놓였다.

NWITIMES는 지난 26일 슈퍼리허 법정에 제출된 고소장을 인용해 "일리노이 은행(the First National Bank of Illinois)이 교회의 스티브 문제이(Steve Munsey) 담임목

사, 미 국세청, 서튼플레이스 콘도미니엄스를 상대로 압류 소송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서튼 플레이스는 5,700달러 상당의 동업조합비를 내지 않은 상태며, 국세청은 교회를 대상으로 53,790달러의 재산차입권을 갖고 있다.

이달 초 이 매체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패밀리크리스천센터는 지도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여행·식사·연료비 등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대출 이자는 제대로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O.C./얼바인 지역

이철 담임목사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모이는교회 흠뻑이기는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

박용덕 담임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손인식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기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받은 우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살려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한중수 담임목사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CA92604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믿음과 기도와 성령의 열매로 감동받은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행, 생명의 사랑을 감동받은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하는 선교사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CA92683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박세록 대표 SAM CARE INTERNATIONAL '강을 건너 세계로',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samcare.org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김삼도 목사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김희담 담임목사 남가주잠실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Norwalk,CA90650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입주자화제\$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저녁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방고,세탁장,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3가+옥스퍼드) T.213.327.4710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100 구매시마다
미네랄 소금 1봉지
무료증정



HQ 구연산 사랑입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원산지 개선과
원산지 인증에
우수한
일파 구연산
\$50
ea + tax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프로모션 A
알파2병 + 오리지널6병 = 8병
or 오리지널 8병
\$280 ~~\$100~~ +tax

프로모션 B
알파3병 + 오리지널4병 = 7병
\$270 ~~\$100~~ +tax

프로모션 C
알파5병 + 오리지널1병 = 6병
\$280 ~~\$100~~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
ea + tax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신제품 출시 안내

HQ구연산을 원료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다 보면 치아가 염려되고 신맛으로 인해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캡슐 제품을 내 놓습니다. 구연산과 아사이베리, 마카, 과라나, 미국
야생 산삼 등을 넣어서 위장을 보호하며 보다 더 강력한 HQ구연산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기쁘게되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 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가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몰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오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감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리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과대학이나 약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편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하며 육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수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 10am-5pm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

김창대 | IVP | 424쪽

책에서 저자는 구약 열두 권의 소예언서가 개별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신학적 의도에 따라 의미있는 구조와 패턴으로 배열됐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인애와 공의와 의의 삶을 촉구하는' 잘 짜인 구성임을 보여주고, 통일된 책 한 권으로서의 메시지 핵심을 규명해 본다.



하나의 눈물로 핀 꽃

채송하 | 넥서스CROSS | 332쪽

마누카내추럴코리아 대표인 저자는 여자로서 밝히기 힘든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용기 있게 보이면서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로 될지 모르는 삶을 개척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임을 강조한다.



레프트 비하인드 11: 아마겟돈

팀 라헤이 등 | 홍성사 | 360쪽

카르파티아는 전세계 엄청난 군대를 끌어 모아 결전을 준비한다. 초자연적 어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린 가운데 레이포드는 wings 신바빌론에서 내려오는 임무를 맡는다. 카르파티아 군대가 밀어닥치면서 치온과 벅, 레이포드 등은 사력을 다해 카르파티아와 맞서지만 위기를 맞는데...



성경, 이야기로 읽는다

스티븐 니콜스 | 성서유니온 | 240쪽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입을 뽀뽀러 이룰 자신의 삶과 연결하려는 열망도지 품지만, 그 결심과 현실이 연결되지 않을 때가 많다. 책은 성경을 진정 맛보고, 그 속으로 들어와 참여하고 살아내라는 초대장이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네 요소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게끔 큰 그림을 보여준다.



REVIEW

변화하는 자본주의에 적응하라... 책 <포스트 캐피탈리즘>

“진화하지 못한 부리를 가진 핀치는 결국 멸종하고 만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월스트리트의 탐욕 등 궁지에 내몰린 경제학과 자본주의에 희망은 있을까. 책 <포스트 캐피탈리즘>이 그에 관해 답 대신 내놓은 말이다.

책에서 저자는 경제 주체가 가지는 합리성을 배격하고 각 주체의 선택에 무게중심을 두는 '진화경제학'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의 미래를 진단한다. 다가오는 변화의 역학을 설명하고, 오늘날 지배적인 자본주의 형식을 과녁에서 벗어나게 하는 주요한 문제점, 자본주의가 생산하는 가치의 형태와 운용 방식을 규명한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경제 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으로 저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주의에 적응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한다.

자본주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컨대 자본주의의 총아로 불리는 지적 재산권의 경우가 그렇다. 저자는 지적재산권의 주체가 중국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만약 중국이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지적 재산을 창출하기 시작하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 많은 사람들의 예상처럼 지적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는 주의로 돌아설까? 저자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오히려 중국은 지적 재산의 강국이 될 때 그 힘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법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스턴대학교의 마이클 모이러와 짐 배송은 <특허의 몰락>에서 “특허 체계는 대개 혁신에 해롭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른 사람이 따낸 특허

가 이익을 약화시켜 '자신들만의 것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꺾어 놓기 때문이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진화와 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 중국은 '공유'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과거 실리콘밸리가 직접 접촉과 인력 교환을 통한 폭넓은 개방성을 확보해 성공을 거둔 것처럼 스스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이 촉발시킨 자본주의의 진화는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 IBM의 리눅스 지원, 환경 특허 공유제와 같은 방법으로 성장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

자본주의를 진화시키는 것은 비단 중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디지털 원



포스트 캐피탈리즘 크리스토퍼 메이어, 줄리아 커비/오수원 | 비즈니스맵 | 460쪽

주민 세대의 유연성과 효율성은 '선물 경제(gift economy)'를 탄생시켰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테크놀로지를 일상으로 끌어들이었다. 기업은 이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며,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사회 문제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자본주의가 내세운 수많은 가치 중 하나였던 금전적 이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유용한 도구였던 경쟁은 쇠퇴하고 있다. 이제 자본주의는 소재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형태를 띠 것이며, 그 체제에서 성공하는 방법 또한 변할 것이다. 성공 여부는 이제 적응에 달려 있다. 주변 환경의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김은애 기자



미주 대한 신학대학교

부설 American Sports University 아메리칸 스포츠대학교

미주 대한신학대학교는 1948년에 설립된 한국의 대한신학대학교(현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와 대신교단의 인준을 받아 미주교역자 양성 기관으로 1995년 5월 30일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등록하고 주정부교육국의 학사, 석사,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대학교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 대학에서는 신학 공부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자체 발행하여 수여하는 스포츠 학과 Teaching License를 취득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대학부 : 신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대학원 : 목회학 석사 (3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과 (4년) -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신교학 석사 (2년) - 대졸 및 동등학력자

Teaching License 수여 과목 : 골프, 테니스, 체조, 태권도, 승마

**차별화된 전문인 선교와 목회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310-598-0746 최 제이콥 목사(Sports Missionary Professor) mr. jacob601@hotmail.com
- 주소 : 3240 Wilshire Blvd., #250 Los Angeles, CA 90010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총회장 황수원 목사, 제단 이사장 유당열 목사

십자군과 까울레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경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회(前回)에서 기술한 바 있다. 만일 경교가 한국에 들어왔다면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12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교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한국과 기독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가능성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징키스칸으로 대표되는 몽골 제국이 아시아와 유럽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破竹之勢)로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 이 상황을 다들스럼하게 그러나 걱정스럽게 바라다보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로마 교황청이었다.

무함마드는 주후 610년 경 알라의 계시를 받고 이슬람교를 창시한다. 다신교 사회에서 유일신 알라를 선전하는 그를 박해하자, 무함마드는 622년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을 갔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 '헤지라'라고 한다. 따라서 622년은 이슬람 연대의 기원이 된다.

메디나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무함마드는 630년 메카 함락에 성공하여 이슬람 공동체를 형성하고 전투적 전도에 나선다. 이렇게 해서 아라비아 각지를 평정한 그는 그 세력을 넓혀 중동 지방을 넘어 유럽 지역까지 점령하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진격해 나갔다.

이슬람 세력은 급기야 주후 638년 성도(聖都)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이스라엘 각지에 세워진 성당 첩탐 높은 곳에 달린 십자가가 내려지고, 이슬람의 상징인 초승달 모형이 대신 올려졌다. 이렇게 근 400년 이상 지난 후 무슬림에 점령 당한 성도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한 십자군 운동이 교황청 주도로 전개된다.

제1차 십자군이 1099년 예루살렘을 탈환 했으나, 주력군이 귀향한 후 다시 이슬람 군에 점령 당한다. 그 후 7차례나 거병했으나 모두 실패로 결말났다. 십자군은 십자가의 가치를 높이 들고 성도 탈환을 위해 진군하면서 각지의 무슬림들을 무차별하게 살육했다.

군인은 말할 것 없고, 부녀자, 노인 심지어 어린 아이까지 잔혹하게 진멸하고, 그들이 소유한 각종 보화를 탈취하였으며, 성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비롯해 나중에는 동방교회(히랍 정교회) 교인들까지 죽이는 만행을

자행하기도 했다.

이 십자군운동에서 비롯된 기독교 권과 이슬람권의 피로 얼룩진 원한은 오늘까지 이어져, 9·11사태를 비롯한 각종 테러와 자살폭탄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기독교권에 대한 앙갚음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갈면서 복수의 날을 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여년에 걸쳐 해결하려 했던 무슬림 세력의 진멸과 성도의 탈환이라는 십자군의 목표는 좌절되었다.

십자군이 남긴 역사적 교훈은 "교회는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심령을 점령하는 것이다" 였다. 성도를 탈환 한다는 명목으로 일으킨 십자군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이슬람의 기독교에 대한 끝없는 원한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동쪽으로부터 진격해 오는 몽골군은 십자군이 해결하지 못한 이슬람권을 초토화 시키면서 서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속의 숙적을 대신 물리쳐 주는 몽골군을 고마운 눈으로 바라다보는 곳은 십자군 운동을 선도한 로마 교황청이었다.

그러나 만일 몽골군이 이탈리아까지 진격해 온다면 자기들만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었다. 이에 교황청은 몽골군과 화해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리고, 1245년 교황 인노첸트 4세는 프랑스 리옹에서 공의회를 개최하고, 몽골과의 화친을 위해 사절단을 파송하기로 결의하기에 이른다.

성 프란시스의 제자인 카르피니(P. Carpini)를 단장으로 한 3명의 사절단이 1245년 리옹을 출발하여 이듬해 7월 몽골의 수도 카르코룸에 도착했다. 이들은 몽골 황제 정종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교황의 친서를 전달했다. 그들은 6 달이 지난 후 정종의 답신을 받아 1247년 가을 무렵 다시 유럽으로 귀환했다. 이로써 교황청과 몽골은 화친을 맺어 우호적인 관계가 정립되었다.

이처럼 가톨릭의 정식 사절단이 몽골을 다녀간 후 한동안 로마교회와 몽골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지속되었다. 그런데 이런 우호적 관계가 지속되는 중 우리와 깊은 관계가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두 번째 교황청 사절인 프란시스코 소속 신부 루브룩(W. Rubruck)의 몽골 파견이었다.

그는 1253년 몽골 수도 카르코룸에 도착하여 몽골 황제 정종의 환대를 받았다. 정종은 루브룩 신부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겨울을 지내고 귀국하라고 권면하였다.

루브룩 신부는 여러 차례 정종을 알현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하려 했지만, 황제를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 1253년 7월 귀국 길에 올랐다.

루브룩 신부가 몽골을 다녀가면서 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일을 하나 남겼는데, 그것은 한국을 서구 세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일이다.

그가 귀국한 후 여행기를 썼는데, 그 여행기 속에 교황청에 써 보낸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자기가 중국 동북부에 있는 어떤 강(압록강)에 이르렀는데, 강 건너에 "까울레"(Caulle)라는 나라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까울레는 중국식 발음으로 "고려"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어 서구에 소개되는 첫 번째 일이다.

루브룩 신부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윌리엄 부커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까울레(Caulle)와 만스(Manse)라고 불리는 민족들이 사절단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들은 겨울이면 동결해 버리는 바다에 둘러싸인 곳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타르 족들은 그곳을 침략할 수 있습니다."

루브룩 신부가 까울레라는 나라를 알렸는데, 이 "Caulle"가 "Corea"가 되고, "Corea"에서 오늘의 "Korea"가 되었다. 그러므로 루브룩 신부는 한국 즉 "코리아(Korea)"가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된다.

역사에서 "만일"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일 루브룩 신부가 압록강을 건너 한국 땅에 발을 들여 놓고, 전도하여 세례 교인을 획득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의 역사는 12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될 터이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 오지 않았고, 복음도 전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때 전해지지 못한 복음의 흔적은 그 때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임진왜란 때로 내려가게 된다. <계속>

“잘 웃는 목사”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날마다 씩씩은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보네...”

찬송이 절로 내 입술에서 흘러나온다.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은 1:2 비율로 다가온다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틀린 것 같다.

1:10 정도로, 좋은 일 하나에 힘든 일이 열은 달라붙는 것 같다.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으로 겪는 외로움과 실존적 위기에서 겪는 아픔은 교회 주차장에 때를 놓쳐 나뭇구는 이름 없는 낙엽만큼 쓸쓸하기 그지없다.

내가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명단이 50명이 넘는다. 가끔 기도하다 보면 마치 내가 의사가 되어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환자들을 회진하는 듯한 착각을 하곤한다.

환자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야말로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내앞에 어려운 일”을 보는 분들이다. 나는 50명 정도인데, 의사 선생님들은 아마 100여명, 아니 그 이상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보는지 그 비결을 배우고 싶다.

얼마 전 한 의사 선생님의 글을 읽었다. 매일 100여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은 의사는 고

통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는 환자를 가족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은 환자 앞에서 절대 우울한 표정을 짓지 않는다고 한다. 항상 밝게 웃고 긍정적으로 치료한다고 한다.

어두운 환자를 보면서 의사까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웃음을 지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웃음 바이러스’를 환자에게 전해주는 의사가 되었고, 환자들도 이렇게 ‘웃는 의사를’ 일부러 찾는다고 한다.

이처럼 좋은 목사도 잘 웃는 목사라는 생각이 든다. 목사의 웃음 속에서 소망을 찾고, 목사의 기도 속에서 삶을 되찾는 성도들에게 난 오늘도 웃음 바이러스를 선물하려다.

“...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찬송한다.



박광철 목사
조이헬로십교교회

닉 월랜드(Nik Wallenda)는 미국 곡예사로서 아무런 안전망도 없이 높은 곳에 맨 줄을 타고 위험한 곡예를 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는 바람이 강하고 물안개가 많이 피어오르는 2012년 6월 15일에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끈게 걸어 놓은 철사줄을 타고 폭포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온전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건 그의 삶과 죽음이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 앞만 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할까요?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둡고 미끄럽고 흔들리는 세상에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신뢰해야 한다



여호수아 미국대륙횡단선교회

본 선교회는 청소년 캠프사역으로 대한민국 2세들에게 여름방학(30일) 겨울방학(10일) 동안 광활한 미 대륙을 횡.종단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위대하심을 알게 해주며 신비로운 자연과 유명 관광지, 유적지, 선교지를 답사하고 동부 IVY 리그 대학들을 탐방하여 큰 꿈과 용기와 비전을 갖게하며 영적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사랑, 섬김, 협력, 리더쉽을 키우며 예수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 비 영리 선교 단체입니다.

***본 선교회에 뜻을 같이하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25국립공원, 30개주, 40명소, 1만 마일, 5개 IVY리그 대학

대표 : 최영봉 목사

1134 S Western Ave #A-5 LA CA 90006

Tel. 213-271-5034



LA-> 요세미티NP-> 타호호수-> 솔렉시티(소금호수)-> 엘로스톤NP-> 러쉬모어NM(대통령 큰바위얼굴) 시카고(시어저타워,오대호)-> 클리블랜드->나이아가라 폭포-> 보스턴(하버드대학교,MIT 공과대학교)-> 뉴 헤이븐(예일대학교)-> 뉴욕(맨하탄 자유여신상,엠파이어빌딩,NYU대학교,콜롬비아대학교)-> 워싱턴 D.C (백악관,국회의사당)->ST. Louis-> 덴버(로키마운티NP,공군사관학교)-> 콜로라도 스프링스(파이크스 피크, 로얄고지 다리)-> 블레이크턴 NP->아쉬NP-> 케넬랜드 NP-> 나바호 인디언 선교지-> 파월호수NP(8시간 유람선)-> 그랜드 캐년 NP->BRYCE캐년 NP-> Zion 캐년 NP->라스베가스-> LA

왜 선교인가?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미국에서 최고의 스포츠는 풋볼입니다. 프로풋볼팀 중 최강의 강자를 가리는 챔피언전인 '제47회 슈퍼볼'이 지난 2월 3일 루이지애나주의 뉴올리언스에서 있었습니다.

전통적 강호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팀 간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시청하고자 1억 6000만명이 TV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당일 유수의 기업들이 엄청난 분량의 광고를 슈퍼볼 중계에 쏟아부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다수 광고에 참여했습니다. 전 세계 37개 기업들이 슈퍼볼 중계방송의 광고에 지불한 비용은 3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30초짜리 광고 단가는 평균 400만 달러나 되었습니다.

왜 기업들은 광고를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까요? 슈퍼볼 중계방송은 미국에서 가장 큰 시청률을 올리는 TV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열리는 슈퍼볼 중계방송의 평균 시청률은 5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이는 미국인 두 명 중 한 사람은 반

드시 슈퍼볼 중계방송을 시청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업으로 볼 때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최상이요, 최고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전타임 중간 중간 방송사는 광고방송을 내보냅니다.

기업들은 시청자들의 눈을 자신들의 광고에서 떼지 않도록 감각적이면서도 독창적인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이 광고를 제작하는 비용도 실로 엄청난 액수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있어도 알리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알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며 재정을 쏟아부습니다. '전하는 것'이 제품의 호응을 얻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전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소위 일류 기업들이 기업 홍보나 광고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수익 대비 25퍼센트대에 이르고 합니다. 이는 상품을 팔아 생기는 이익금의 4분의 1을 광고를 위해 지불한다는 말이 됩니다. 잘 되는 기업일수록 '전하고 알리는 일'에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깝지 않은 투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하는 일'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니, 강조를 뛰어넘어 사명으로 삼을 것을 유언하셨습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마가복음 13:10)" /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15)"

또한 자신의 사명이 '전하는 일'임을 몸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9:35)"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누가복음 4:43)"

하나님 나라는 '전하는 일'을 통해 확장됩니다. '전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없습니다.

기업이 사활을 건 '전하는 일'에 주력하듯 복음을 전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신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통독과 이해를 위한 둘째 지팡이



이학진 장로
사랑의빛선교교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의 책입니다(사 41:11). 모세오경에서부터 시간을 타고 흐르는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주제는 신약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언약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패역하기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믿음을 지킨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돼 이 세상의 끝날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참고 계 22:7, 12, 14)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첫째, 하나님과의 언약 수립, 둘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갱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나누어 세 가지의 시대적 흐름 혹은 단계로 나

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5단계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수립

창 1-3장.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제 6일째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십니다. 이는 창조에 이어 세상의 만물들에게 이름을 주어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조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 나라의 땅인 에덴동산에 있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 11-17장.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썸의 후예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원하시므로 우상을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살던 땅, 하란을 떠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창 12:1) 언약

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창 12:2-3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의 첫 부분을 말씀하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약속의 두 번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언약의 기초로써, 우상을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옛 일을 끊고 새로운 장소에서 (가나안에서 처음 장막을 친 세계, 창 12:6, 13:3)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는 분부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명하시고 이를 하나님 백성의 표징으로 삼으십니다(창 17:9-11).

창 25:19-35:29,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한 약속의 이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창 26:24)으로, 또 야곱으로, 대를 이어서 지켜지는데 야곱은 예서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아브라함이 살던 밧단아람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베엘에서 노숙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창 28:13-15) 둘째계를 했던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창 28:20-2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이행을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먼저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흉년으로 피폐해진 야곱의 온 식구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출 19장,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행하려고 애굽의 이민생활을 통해서 장정 60만의 큰 민족으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세상의 다른 민족에 대한 제사장 백성으로의 본분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복음을 받은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성결케 하시며,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식을 거행하게 됩니다(신 7:9-11). 그리고 모세는 십계명과 율법을 언약계 안에 보관했고 때를 따라 율법을 낭독하게 하셨습니다(수 8:34-35).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출 19:5-6, 신 7:9-11).

신 4:1,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하여 갱신되는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출 19-20장),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은 바란광야에 이르러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의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할 것과 출애굽 세대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40년이 지나 가나안의 목전인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첫째 설교, 신 1:6-4:43),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될 언약으로 갱신하여 선포합니다(둘째 설교, 신 4:44-26:19). 그리고 모세는 셋째 설교(신 27:1-10)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순종 여부에 따라 저주와 축복을 선언하는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신 11:26-30, 27:12-13).

이상의 5단계로 수립된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들은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출 20:1-17) 언약을 지키는 방법은 쉼마(Shema)입니다. 이는 신 6:4-5에 설명돼 있는데, 이 들으라는 명령은 언약법의 다른 규정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신 6:1-3). 쉼마의 내용은 너무도 중요해서 모세는 모든 부모들에게 율법의 다른 내용과 함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의 일부를 그들의 몸에 장식처럼 달고 다니게 하였습니다(신 6:6-9).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쉼마의 내용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으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레 19:18)고 한 둘째 계명을 부연하셨습니다(마 22:37-40, 막 12:29-31, 눅 10:27). 이를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칭합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다,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213) 402 - 5136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김인호 CPA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State Filing)
 비영리 허가취득(IRS, FTB)
 By-Laws, Minutes, Mission Statements
 교회 재정보고서(Financial Statements) 작성
 교회 재정 및 행정 Internal Control 상담
 교회 재정 소프트웨어 Quickbook, PowerChurch 설치 교육
 교역자 및 직원 세무상담
 Payroll Services

562-467-1114
 certioscpa@gmail.com

Cerritos Accountancy Corporation
 17215 Studebaker Road #150
 Cerritos, CA 90703



공 고

**2011년 3월 3일 게재된 웨이스 신학교 광고중
 ‘메이천 박사’에 대한 내용은
 잘못 오보된 광고임을 신문지상을 통해 공고합니다.**

**웨이스 기독대학 신학 대학원
 학장 양병삼 목사**

Life

건강 칼럼

스킨십 힐링

따스한 봄빛이 마침내, 긴 겨울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살갗에 닿는 바람에는 긴 겨울의 잔여물이 묵은 상처처럼 매달리지만, 한낮의 햇살에는 봄 향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겨우내 추위에 절었던 마음들을 녹이며, 아직도 못다 치유된 마음의 상처와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랑 가득한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힐링해 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유형별로 스킨십을 좋아하는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성이 풍부하거나 예술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특히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외로운 사람에게 스킨십은 힐링, 그 자체입니다.

스킨십을 성관계와 혼동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부드럽고 사랑을 담은 스킨십을 원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원하는 스킨십을 성(性)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정하고 부드럽게 등을 토닥여주는 것,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는 것, 어깨를 감싸안아 주는 것, 손을 잡아 주는 것, 따뜻하게 포옹하는 것... 이런 스킨십에는 분명 강력한 치유적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성격이 터프한 어머니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 스킨십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아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주거나 안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나는 감성형의 기질을 크게 타고 났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스킨십이 필요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스킨십을 원했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속에서 외로워했습니다.

이성형의 기질을 가진 어떤 지인이 아이들이 자신에게 달라붙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이 고파서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때 아이를 밀어내게 되면 아이는 사랑의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 중에도 스킨십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아주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향의 차이기도 하고, 가족 내의 분위기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

면 전자는 늘 크고 작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해주는 것이 가족이며, 서로 사랑을 나누는 온전한 가족입니다.

헨리 메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킨십이다.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바로 잡아 준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약이다. 처방은 이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으라는 것이다.”

매일 자녀를 안아주면 자녀의 면역력이 증가하고 정서발달과 지능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포옹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스킨십을 자주 하다 보면 가족 내의 갈등으로 인해 식어버린 사랑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 내 아이들에게 포옹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토록 착착 감기듯 달라붙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커서 스킨십을 어색해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너희들의 포옹이 필요해”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어머니로 부터의 스킨십이 결핍되어 있던 내게 내 아이들은 그 결핍을 채워주는 소중한 치유자였습니다. 지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작고 보드라운 손길로 엄마를 껴안아주며 무한 신뢰를 보내오던 그 느낌을.

사랑은 이렇게 스킨십을 통해 전달이 되며, 그 스킨십은 우리의 마음 속 상처를 치유하는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치유가 되며 은총이 되는지를, 이 따뜻한 봄날, 다같이 누릴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강선영 목사

성지순례 칼럼

출애굽 연대를 BC 15세기라 하는 이유

출애굽의 연대 문제는 지나간 1세기 동안 학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된 추측과 논쟁의 대상이다. 19세기 말에 이르러까지는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성서에 대한 문서비평이 시작되면서 출애굽에 관한 성서의 내용에 의문을 던지기 시작 한다.

이와 같은 회의적 자세에 대해 보수적인 성서학자들은 성서고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킴으로써, 당시 팽배해 있던 성서회의주의에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하여 타개했다. 이들은 고고학 발굴에 의해 제시된, 성서 이외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하여 성서의 고대성과 역사성을 나름대로 수호하는 일에 공헌했다. 그러나 고고학 발굴 자료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출애굽에 관한 내용은 오랜 연구와 논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주제로 남아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출애굽 사건의 역사성과 관련하여 출애굽의 정확한 연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첫째로 성경 자체가 다른 시대에 비하여 출애굽과 관련된 인물이나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출애굽과 관련하여 성경 이외에 다른 명확한 문헌적 자료들이 없다. 출애굽 연대와 관련하여 학자들이 주장한 다양한 견해는 대략적으로 BC 16세기설과 15세기설, 그리고 13세기설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출애굽의 시기가 BC 16세기라는 주장은 주전 3세기의 이집트 헤리오폴리스 제사장이자 역사가였던 마네토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반유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고대 이집트의 3000여년 역사를 31개 왕조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단지 요세푸스와 같은 후대의 역사가들에 의하여 그에 대한 자료가 인용되어 전할 뿐이다. 요세푸스가 인용한 마네토의 주장에 따르면 이집트 제19왕조 시대에 이스라엘인들은 히소스와 더불어

이집트에서 축출되었고, 그것은 구약의 출애굽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마네토에 의하면 요셉이 이집트에 도착한 것은 히소스 왕조 아포피스 제4년이며, 그가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아포피스 제17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마네토의 주장에 따르면 출애굽의 시기는 BC 1550년경이 되어야 한다. 마네토의 BC 16세기설은 그 동안 성서적 자료나 고고학적 증거에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출애굽 연대를 주전 15세기로 보는 입장은 구약성서의 두 구절, 즉 열왕기상 6: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사년 시브 율 골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와 사사기 11:26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삼백 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의 말씀을 비롯하여 관련 고고학적



출애굽의 증거물

발굴 결과에 의하여 지지를 받고 있는 학설이다. 열왕기서 성경 저자는 왕상 6:1에 출애굽이 있던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BC 966년에 하였으므로 우리는 이 성경 기사에서 출애굽 연대를 BC 1446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 출애굽 연대를 견지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초기 연대를 부정하고 BC 13세기 중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열왕기상 6:1 본문은 부패된 것으로 간주하고, 또 “480”이란 숫자를 있는 그대로 취하는 대신 재해석하여 이상적인 세대인 40년의 12세대에 대한 숫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당대 한 세대를 25년으로 계산하여 총 12대 동안의 연한을 300년으로 간주하려고 한다. 곧 성전 건축은 출애굽한 지 300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 출애굽 연대를 BC 1266년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BC 1260년보다 그 이전에 출애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현재로는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연대기로 보고 문자 그대로 따르든가 혹은 아닌가를 판단할 뿐이다.

김홍규 목사
령천교회 중동 선교사
크리스찬 해피투어 중동 선교사

포르테

세종 송보감

세종바이오텍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식약청 공인)

**“참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 KFDA공인 건강기능식품
- 1박스(1개월분) 195볼 ▪ 1박스(3개월분) 360볼

Biotech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오로청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진짜 발효삼? 진력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Tel. 213-383-8899
621 S. Virgil Ave #430 LA, CA. 90005 (미주복음방송국4층)

WIN HYUNDAI

WIN HYUNDAI at El Monte

VERACRUZ Limited FWD 2012

MSRP \$35,910
Win Saving \$5,055
Selling Price \$30,895
COMPETITIVE REBATE \$1,500
HMA REBATE \$1,000
HMF BONUS CASH \$1,000
MILITARY BONUS \$500
COLLEGE REBATE \$400

Net Price \$26,495

SONATA GLS PZEV 2013

MSRP \$22,450
Win Saving \$2,355
Selling Price \$20,095
Valued Owner Rebate \$500
MILITARY BONUS \$500
COLLEGE REBATE \$400
HMF BONUS CASH \$1,000

Net Price \$17,495

ELANTRA COUPE GS 2013

MSRP \$19,590
Win Saving \$1,945
Selling Price \$17,645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HMF BONUS CASH \$750
COMPETITIVE REBATE \$500

Net Price \$15,495

ACCENT GS M/T 2013

MSRP \$16,060
Win Saving \$1,665
Selling Price \$14,395
Military Rebate \$500
College Grad Rebate \$400

Net Price \$13,495

한인담당
Alex Shin
www.winhyundai.com
El Monte

이 광고는 3월20일까지 유효합니다.

Assurance

Tel. 888.409.3002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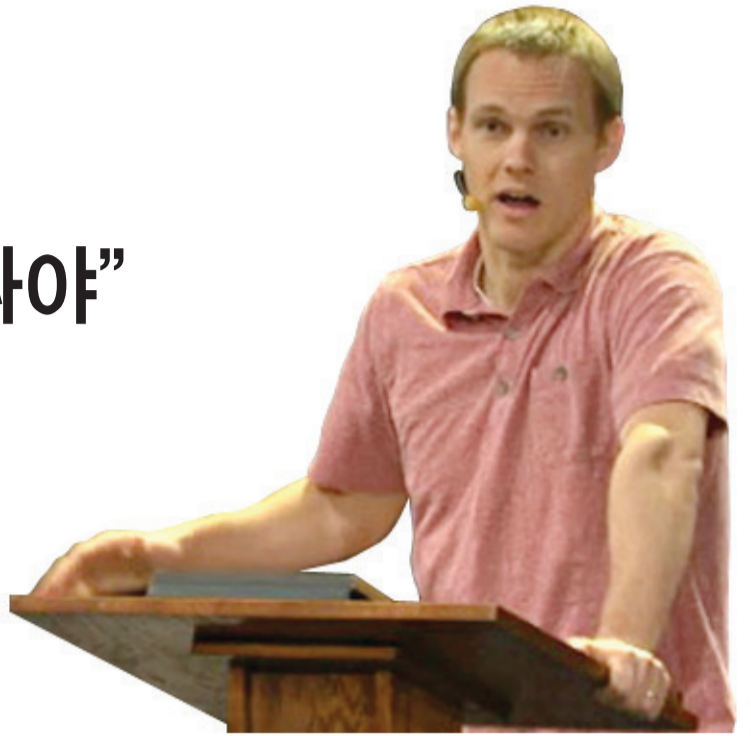
3462 N. Peck Road,
El Monte, CA 91731

COVER STORY

<래디컬> 저자 플랫폼 “교회는 방관자적 사고에서 깨어나야”

버지 컨퍼런스 강연 통해

‘즉각적 순종과 철저한 말김’ 강조



<래디컬> 저자로 잘 알려진 데이비드 플랫폼은 지난 3일 오스틴 무디 상영관에 열린 버지 컨퍼런스(Verge Conference)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어 주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을 인용해 “교회는 사람들을 지옥의 길목에 앉히는, 방관자적인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목사는 “오늘날 우리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헌신은 매우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난 최근 통계를 공개했다.

그는 “미국에는 크리스천이 아니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며 “문화적으로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는 많은 미국인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 버지 컨퍼런스의 초점은 제자화이다. 다양한 강사들이 내용과 상황, 문화의 핵심에 들어가 복음 중심의 제자들을 만들고 확산시키는 과정을 나눈다.

플랫폼 목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소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의 무게감과 놀라움을 느낄 필요가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 가치로운 분이시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른 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교회가 어떤 삶의 변화도 도전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죄인의 기도를 파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를 알 때,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함으로써,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지위, 물질적인 기쁨과 관계성 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종종 잃게 되거나 희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여기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 내가 누구인지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조차,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실체가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플랫폼 목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대사명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내어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지었다.

강혜진 기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상담이나 가정사역 세미나를 할 때마다 자주 다루게 되는 이슈는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질문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들 안에는 판이하게 다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자신이 가지지 않은 존재라고 하는 ‘존중’을 아내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더 좋은 남편을 만들기 위해 칭찬보다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려고 합니다.

한 가정사역자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내 남자를 최고의 남자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 즉 많은 아내들은 남편이 최고가 되기까지는 만족하기가 어렵기에, 남편의 잘 하는 것 10가지보다는 못하는 한 가지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이것만 더 잘하면 좋을텐데……’ 그것의 결과로 남편들은 아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에 더 갈급해집니다.

반면 아내들은 남편의 섬세한 배려와 관심을 바랍니다. 성적이지 않은 사랑 표현을 더 많이 원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남편의 관심있는 말 한 마디, “잘 잤어? 좋은 하루! 그리고 사랑해!”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는 손을 잡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작은 행동을 좋아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과 언어의 표현을 통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

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경의(존경)하라” 혹은 “복종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여기에 큰 비밀(32절)이 있습니다.

에머슨 에서리치 박사가 쓴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에

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피차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입니다. 그럴 때 남편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내가 어떻게 존중해 줄 수 있지?”, “사람이 충분히 느껴져야 남편의 뜻에 복종할 수 있지”. 남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존경을 표할 때 나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하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남편은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아내까지도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까지도 사랑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

에머슨 에서리치 박사는 이러한 회복의 노력이 될 중 ‘성숙한 사람’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배우자는 변화가 없는 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죠? 억울해요.’라고 말하지만, 성숙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글=김훈 목사

성서적인 가정 이루는 비결, 바로 여기에

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느껴지는 그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결혼 생활을 풍성하게 잘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33절을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 보면 아내들과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에 표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내의 존경이 없게 되고, 아내의 남편을 향한 존경이 없으면 남편의 사랑 역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서 채워지지 못함으로 생긴 애정 결핍은 서로에게 사랑과 존경을 주지 못하게 함으로, 그것이 지속될 때 ‘정신 나간 주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나아가 이혼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 우릴 위해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25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내의 남편에 대한 존경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올바르게 깨달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24절) 교회의 머리로서 존경(23절)해야 한다는 것이

Gold Finger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전화주시면 출장 주문, 가봉 완성 후 배달

봄맞이 세일
목회자님 위한 세일 20%

Business hour 8:00am to 7:00pm
www.facebook.com/GoldFingerTailorLA

골드핑거

남녀맞춤, 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Byung Ho Kim (Kyung Sik)

- 법무부 직업훈련원 감독위원 역임
- 서울지방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한국복장기술경영협회 상임 이사
- 한국아트패션 회장
- 90년 한국남성복기술경진대회 창작 최우수상
- 94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95년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 회장상
- 대림 라사운영 1979-2000

맞춤 양복 이어서 좋습니다.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웨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Excel Legal Center(엑셀법률센터)

- ✓ 영주권, 시민권 신청
- ✓ 주식회사, 교회, 비영리단체 설립
- ✓ 혼인, 이혼, E2 투자
- ✓ 퇴거, 소액재판, 파산
- ✓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 ✓ 노인시니어아파트 신청대행

☎ 213-365-6622 (67+ 사무스베일러앤코대학원 학생빌딩)
520 S. La Fayette park pl. #501 Los Angeles CA 90057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데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사고 판다다 New & Used Buy & Sell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감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빙베어 농축 흑염소

상왕 흑염소 골드 노년기 신기허약 보강, 신경통 골다공증 특효
황후 흑염소 골드 불임, 피부노화 예방, 수술 후 원기회복
황제 흑염소 골드 양기, 원기 보충, 성인병 예방
왕세손흑염소 골드 신체발육, 시력 향상, 두뇌활성화

한달분 [녹용2냥] \$200

213.388.9099 / 1.800.491.2440 922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K7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번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에 의한 피해 재산, 부동산, 손실분쟁
입주자분쟁(소송/방어서류)
접근금지 명령/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급문제
가정법 약식/일방이혼 | **형법** 정부상대 문제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식당 의자 천갈이 노래방

지압다이 교회장의자 식당부스

오랜 기술과 신용으로 영업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업용/가정용 가구수리

스파 714)222-9792 562)943-7101 교회

16513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603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IOREX USA 세계 최첨단 이온화 시스템

살아 숨쉬는 물 이오렉스

- 미국 FDA세계 최초 승인
- 아토피, 여드름, 주부습진 등 피부질환 개선
- 러시아 GOST마크 획득(18개월 정밀시험)
- 반영구적 집안, 밖 100%사용
- 녹과 중금속 제거 및 살균작용
- 산업, 상수도, 빌딩, 농장, 아파트, 주택 설치
- 수질안전, 이온 활성화, 경제성 확보
- 건축, 부동산업자 환영

562.405.9987 www.iorexusa.com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 트랜스미션
- ✓ 타이밍벨트
- ✓ 브레이크
- ✓ 튜업정비

10% 할인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사업체 펀딩

Goodnews Business Fund Inc.

\$10,000 당 \$ 575 x 20 주 = \$11,500.

Processing Fee \$500.

간단한 서류, 신속한 결과!

TEL (323) 334-6533

동산한의원 3주년

50%할인 당뇨/파킨슨/호흡기/알러지
피부병/ 불임증/ 난치병

세명의 한의사들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영양을 체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당뇨, 간기능 강화, 화상피부에 효능

미백효과 주름개선 노화방지 보습기능 유아들의 민감성 피부

Tel. 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홈페이지 제작

사이트 제작관리 및 수정
쇼핑몰, 게시판 관리
다양한 디자인 배너제작

start from \$499

제작문의 213.587.3498

유익중한의원

Yoo Ik Jong Herbs & Acupuncture Clinic

- * 교통사고
- * 즉시 효과보는 침
- * 식생활 개선으로 치료

원장 **유익중**
Yoo, Ik Jong L.A.C., O.M.D.

323)735-0252 1045 S. Western Ave. #C Los Angeles, CA 90006

이민희 한의원

특진: 만성 피로 증후군

각종 보험 및 교통사고 Easy Choice 지정 한방병원

(213) 385-6688
3000 W. Olympic Blvd, Ste. 303 LA, CA 90006 (올림픽과 놀란드 신촌은행 3층)

www.omdoctor.com LEE, MIN HEE O.M.D., L.Ac.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창문 10개 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스마트 월드

www.GoSmartworld.com 건강용품 전문점!

FUJITA

독일 최고의 엔지니어링 시스템

타사 전신 안마기와 비교할 수 없는 품질과 성능 **\$3,900** from

로테오 갤러리아 833 S. Western Ave. #22 Los Angeles, CA 90005 Tel 323.454.7872

카멜레온 커버

CAMELEON COVER USA

현재 인기 건강 팔찌보다 30 배 뛰어난 효능!

음이온 살리핀! 자동차 핸들 커버 **\$30** (특별 할인) - 양쪽 앞선 모델

졸음 운전 때문에 교통 받는분 차안 각종 냄새 완화를 원하시는분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를 원하시는분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 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동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 (213) 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옥실, 벽, 발코니, 지하실, 창틀방수
크랙 물 새는 곳, 특수 방수공법
완벽 시공, 3년 개런티

213-327-9929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 외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스티브 모리슨 “한국인 입양, 미주 한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한국에서 매년 1만명의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해외입양이 1천명, 한국내 입양 15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7천5백명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아동들에게 가정은 찾아주는 것이 제 삶의 목적입니다.”

스티브 모리슨(57, 웨스트LA 한인 장로교회)장로의 말이다. 그는 지난 20일 시애틀 형제교회를 방문해 한인 입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입양아 출신의 스티브 모리슨 장로는 현재 미항공 우주국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입양홍보회(MPAK) 대표를 맡고 있다.

모리슨 장로는 1999년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입양홍보회(이하 MPAK)을 설립한 이래 크고 작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MPAK은 현재 미주에 3곳, 한국내 33개 지부를 두고 한국 입양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는 여섯 살 어린 나이에 한 살 어린 동생과 거리에서 동전을 주어 끼

니를 해결하던 아이였다. 밤에는 잠자리를 찾기 위해 다리 밑을 전전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학대와 심각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고, 아버지마저 범 죄로 경찰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그

를 해결하던 아이였다. 밤에는 잠자리를 찾기 위해 다리 밑을 전전해야만 했다. 어머니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학대와 심각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갔고, 아버지마저 범 죄로 경찰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그

는 8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다 입양 제한연령(14세)을 몇 달 앞두고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백인 부부 가정에 입양됐다.

대부분이 물론교인 마을에서 그의 양부모는 신실한 침례교인으로서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뽀샤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던 그였지만, 입양 이후 그는 명문 퍼듀대와 남가주대 대학원에서 우주항공을 전공하고 전 세계 GPS 시스템에 없어서는 안 될 인공위성

개발자로 우뚝 섰다.

끼니를 때우기 위해 거리를 헤매던 아이의 인생 최대의 목적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닌, ‘한국사회에 버림받은 아이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입양은 축복’이라

고 말한다. 입양이 한 사람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음을 직접 체험했기에, 그의 말에는 더욱 힘이 실린다. 평범한 고아였던 최석준(그의 한국명)을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한 사람은 그의 양아버지 존 모리슨.

입양은 축복, 모두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 안겨주는 것



스티브 모리슨 장로

“아버지는 가정과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한 분이셨습니다. 제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인도하셨고, 사랑의 실천을 몸소 보이며 제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번은 나를 입양한 이유는 내가 고아였고, 너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인데, 오히려 너로 인해 받은 축복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신 말씀을 이제야 이해한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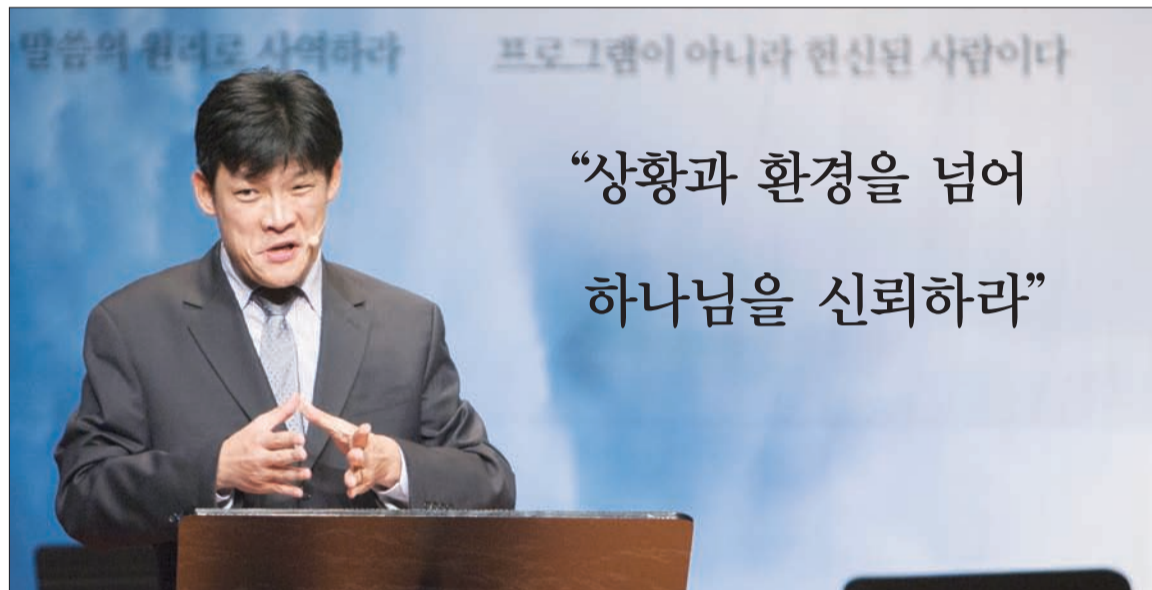
그는 “예전의 나와 같은 한국 아이들에게 가정을 찾아주고, 새 삶을 찾아주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됐다”고 했다.

현재 스티브 모리슨 장로의 가정에는 배로 낳은 세 딸과 가슴으로 낳은 두 아들이 있다. 그는 2000년 전남 나주의 한 영아원에서 세 살짜리 조셉을 입양했고, 2011년에는 한국에서 14살 벤자민을 입양했다. 벤자민 역시 오래전 최석준처럼 한국에서는 성적이 최하위권이었지만 지금은 아이비리그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티브 모리슨 장로는 “한 해 700-800명의 어린이들이 미국으로 입양되고 있는데, 대부분 비(非)한인 가정으로 입양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다. 현재 주류기관을 제외하고 한인사회에서 입양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가진 비영리단체나 종교기관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한인사회에서 고아사역에 관심과 정성을 쏟아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브라이언 기자

뇌성마비 극복한 조현철 목사, 온 몸으로 복음을 말하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난 27일 시애틀 형제교회 강단에 선 조현철 목사가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미국 내 최초 한인 뇌성마비 목사인 조현철 목사가 지난 27일,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준 목사) 강단에 섰다. 교회행사인 <래디컬 피플> 강사로 소개되고 설교자가 강단 앞에 섰지만, 예배당 안에는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후 조목사는 설교의 첫 마디를 힘겹게 내뱉었다.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10분이 더 흐른 후에는 온 몸이 땀에 젖은 듯 설교 중에도 연신 땀을 닦아냈다.

조현철 목사는 제대로 서있기조차 쉽지 않았다. 그는 한마디를 소리내기 위해 더 많은 몸짓을 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비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불편하고, 심지어 불행한 사람이라고까지 비춰질 수 있다. 그러

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강단에 우뚝 선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복음을 온 몸으로 전하는 그는 분명 주의 강한 용사였다. 온 몸으로 설교하는 그의 설교에는 어떤 설교보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다.

조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데서부터 오게 된다”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좁은 생각의 틀 속에 제한하고 있는 듯하다”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한 일을 기대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1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온 몸이 뒤틀리는 뇌성마비 때문

에 몸의 근육들이 비대칭으로 자랐다. 뒤틀린 근육은 다시 골격을 뒤틀렸다.

또한 그는 항상 상체 쪽에 통증을 가지고 있다. 가끔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 조절이 안 되고, 구도가 날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나님께 불평이나 하소연도 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는 오히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더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잘 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시며 두 팔을 벌려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는 오늘도 세계적인 복음전도자가 되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김브라이언 기자

권순도 감독, 필리핀 교회 위해

다큐멘터리 <유관순> 제작

잘 알려지지 않았던 참 신앙인의 자세도 담아

권순도 감독이 ‘유관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권 감독은 그동안 주기철, 손양원, 문준경 등 대한민국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최근에는 북한인권 문제를 한 영화도 수 편 제작한 바 있다.

권 감독이 이번 작품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독특하게도 필리핀 개신교도들의 적극적인 권유 때문이다. 인구 1억명의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지만, 최근 독실한 기독교도들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다. 그 중심에는 ‘Bread of Life’ 교회가 있다. 1950~60년대 필리핀은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국력은 크게 성장하여 필리핀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필리핀 개신교도들은 이러한 한국의 성장 중심에 한국 기독교의 부흥이 있고, 그러한 부흥 뒤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다고 믿는다. ‘Bread of Life’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순교자들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 벌써 수년째 매년 한국을 성지처럼 방문한다.

그들은 순교자들의 삶을 돌아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찾던 중 권 감독의 순교자 DVD 시리즈를 발견하고, 그 후로부터 권 감독과 교류를 가졌다. 그들은 ‘왜 유관순을 다룬 기독교 영상물이 없느냐?’고 의아해 하며 권 감독에게 꾸준한 제작을 요청했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권 감독은 유관순 열사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신앙인 유관순을 만났다. 흔히들 유관순이라 하면 3.1운동에 앞장섰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옥사했다는 정도만 기억한다. 하지만 유관순이 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한 가지 예로,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에서 3.1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제 헌병들이 자신의 부모를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폭력적 보복이 아닌 용서와 관용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관순은 항상 기도에 의지한 신앙인이었고,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담담하여 일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

작품조사를 진행한 권 감독은 “그동안 유관순 열사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을 뿐이었었는데, 조사를 하면서 유관순 열사가 그렇게 용감하게 일제에 맞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이러한 위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느꼈다”고 전했다.

다큐멘터리는 내년 1월 완성되어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제작후원은 ‘순후원’과 ‘DVD 선구매’ 형식으로 가능하다. 후원 문의전화는 070-8880-5167로 하면 된다.

신태진 기자

Advertisement for iTalkBB international calling service. Features include: \$9.99/month for unlimited nationwide calls, 27 international countries included, and a special offer of 2 months free for new customers. Includes a comparison table with AT&T, Verizon, and Time Warner.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



“귀하를
푸엔테힐스 현대로
초대합니다.”



8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럭셔리한 중후감을 느껴보세요!!

2013 EQUUS Signature

\$539

+TAX (STK. 066759)

48Month lease /12k mile/ T.D.O 4,999

MSRP \$60,170

PH HYUNDAI D/C \$5,359 LEASE CASH \$1,500
COMP. REBATE \$1,0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2013 SONATA GLS

2013 ELANTRA GLS



36Month lease /12k mile/ T.D.O 2,999

MSRP \$22,770

PH HYUNDAI D/C \$1405 LEASE CASH \$1,500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25

+TAX (STK. 693375)

36Month lease /12k mile/ T.D.O 3,999

MSRP \$19,350

PH HYUNDAI D/C \$945
COMP. REBATE \$500
MILITARY REBATE \$500
COLLEGE REBATE \$400

\$115

+TAX (STK. 729686)

브라이언 리
858.337.3993

빅터 최
626.482.0681

스티브 장
626.513.4006

제니 김
626.513.4683

찰리 정
626.513.4981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